

단체문자 서비스의 입장일단

오·남용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문자 서비스에 몇 가지 보완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2002년부터 공지사항을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해 왔다. 현재는 하루에 3~4천 건의 문자가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문자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각종 행사부터 각 과 공지사항까지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문자로 전송받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강승희(산업경영 3) 학생은 "일일이 공지사항을 체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 특히 강의실 변경 등을 알려주는 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영학과의 한 학생은 "물류관련 정보를 알게 되는 점에서 편리하다. 각종 강연 등의 행사 문자가 왔을 때 시간이 썩으면 가서 듣기도 한다"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 서비스의 오·남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횟수, 같은 내용의 중복, 해당사항 없는 내용, 잘못 전달된 내용 등의 문

자가 도착하는 경우가

이우리(산업경영 3)학생은 "정작 휴강 등 중요 공지사항이 도착하지 않고 관심 없는 행사 내용만 오는 게 불만이다"고 말했다. 한유정(매디 2)학생은 "같은 내용의 문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광고문자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에술(매디 2)학생 역시 "학기 초 수업이 늦춰졌다는 공지 문자가 왔는데 알고 보니 정시에 시작해 당황했던 적이 있다"며 잘못된 내용이 전달된 경우를 전했다. 예술대학의 한 학생은 "졸업반도 아닌데 인터뷰 문자가 오거나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쇼핑몰 홍보 문자가 오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 발생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문자 대상을 지정할 때 단과대학, 전공, 학년, 학적만 골라낼 수 있다. 계열학기, 예비군 등의 대상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따로 정보화팀에 의뢰해야 한다. 정보화팀에 의뢰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이 아닌데도 문자가 발송될 수 있다.

또 이미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지 보낸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중복 문자가 발송되기도 한다.

김기호(정보화팀)팀원은 "예를 들어 한 단체에서 제전을 연다고 하면 학생회에서도 정보화팀을 통해 문자를 보내고 학과에서도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용자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현재 발송건수가 무제한이며 내용상 제제를 가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이러한 내용을 매카지 인트라넷을 통해 권고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기호 팀원은 "주요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사 전날, 당일 아침, 시작 전에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자는 내용과 관계없는 졸업생에게까지 전송되고 있다. 재작년 졸업한 이지연(지정 졸)씨는 "취업과 관련한 문자가 가장 많이 온다. 바쁜 일

무 중 문자가 오면 일의 흐름이 깨질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인 줄 알고 확인했는데 학교의 단체 문자면 불쾌감이 든다"고 전했다. 이미 취업을 한 그에게 전송되는 취업 문자는 스팸문자와 다를 것이 없다.

이 역시 시스템 상에서 졸업생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졸업생이 취업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자가 계속 전송되는 것이다. 문자를 받지 않으려면 직접 개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핸드폰번호를 지우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6월 중순 새로운 SMS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부가세 포함 1건당 20원으로 한 달에 약 250~3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개인당 500건으로 발송건수가 제한되고 건당 15원으로 계약액 총 금액이 20% 가량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한번 써보실래요?” 지난 4일, 미래관 DLC에서 열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주최한 창업로드쇼에서 정주택 총장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영훈 기자 755914@hansung.ac.kr

불규칙한 셔틀 버스 배차간격

지하철 입구 도착시간 고지 필요

학교 셔틀 버스의 불규칙한 배차간격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몰리는 오전 9시 전후가 가장 큰 문제다.

매일 학교 셔틀 버스로 등교한다는 강승희(산업경영 3)학생은 "아침에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것 같다. 특히 1교시 수업 전에 사람이 가장 많은데 15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곤란했던 적이 있다. 아침만이라도 운행 편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버스의 출발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도 불편의 한 원인이다. 현재 셔틀 버스 배차시간대는 오전 8시 30분~11시, 오후 12시~1시, 5시~7시 사이다. 그러나 이 시간대 안에서 정확한 배차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운행되기 때문에 불편이 따른다.

이에술(매디 2)학생은 "버스 대수를 늘리기 어렵다면 오는 시간이라도 정확히 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침 시간 버스의 배차간격이 불규칙한 가장 큰 이유는 이용하는 학생에 비해 버스 및 기사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모두 네 대로 네 증 45인승 대형버스를 제외한 34인승, 29인승, 25인승 버스 세 대가 학생들의 등하교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담당, MT 등으로 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버스 한 대만 순환하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넓어지게 된다.

김두영(총무인사팀)팀원은 "또한 버스 기사가 세 분밖에 없어 더 자주 돌기가 쉽지 않다. 다음 학기에 버스를 늘리기 위해 건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총학생회, 국토대장정 추경예산 인준 부결

“신청자 50명 이하일 땐 행사 취소”

지난 4일, 총학생회 사임인 국토대장정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예산을 논의한 결과, 해당 예산 인준이 부결됐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123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총학생회에서 사용한 2010년 상반기 대동제 추경예산 집행 보고와 상반기 예산 미집행 금액 보고, '한성인 문화 탐방 기행단'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장호철(경영 4) 총학생회장은 "대동제를 진행하며 2학기 때 학생회 예산을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미리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반기 예산 미집행 금액에 대해 "방중에 실시하려는 국토대

장정 지원비 100만원과 복사기 대여비로 총 205만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여 총학의 방중 국토대장정 추경예산 인준을 처리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사업에 대해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작년에 갔던 지리산과는 달리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제주도 울레길, 한라산으로 채택했다"며 "두 발로 완주하는 것이 목표인 국토대장정은 육체적 한계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예산은 이동수단과 숙소비, 장비 렌탈비로 대부분 소요된다. 회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외부로 이동하면 홍보효과도 배가될

것이다"며 "사업비로 100만원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추가로 2학기의 학생회 예산에서 500만원을 더 끌어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업지원팀과 연계해 국토대장정에 드는 개인의 비용을 자신의 교육훈련지원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진행 중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이 일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작년에는 지리산으로 가서 참여율이 적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참여율도 높고 활발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안건은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123명 중, 53명이 찬성하고 31명이 반대, 39명이 의사를 밝히지 않아 참석 인원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인준을 받지 못했다. 대의원이 학생들의 참여도에 따라 행사의 진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상임위원회(대의원총회 이후)에서 "5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모이지 않는다면 행사는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가 많을 경우 다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부결된 학생회 예산안을 두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odorill@hansung.ac.kr

학술정보팀, 국내 잡지 무료 배부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학술정보관 학술정보팀 연속간행물실에서 2007년 국내 잡지를 교내 구성원에게 무료 배부하는 행사가 열렸다.

학술정보관 내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잡지는 제본해 영구 보관하지만 통째로 교양, 취미, 이학, 오락 관련 잡지는 학술정보관내 공간부족으로 2년간 소장하고 폐기한다. 정미영(학술정보팀) 차장은 "잡지를 폐기하는 것보다 개인에게 필요할 수 있는 자료를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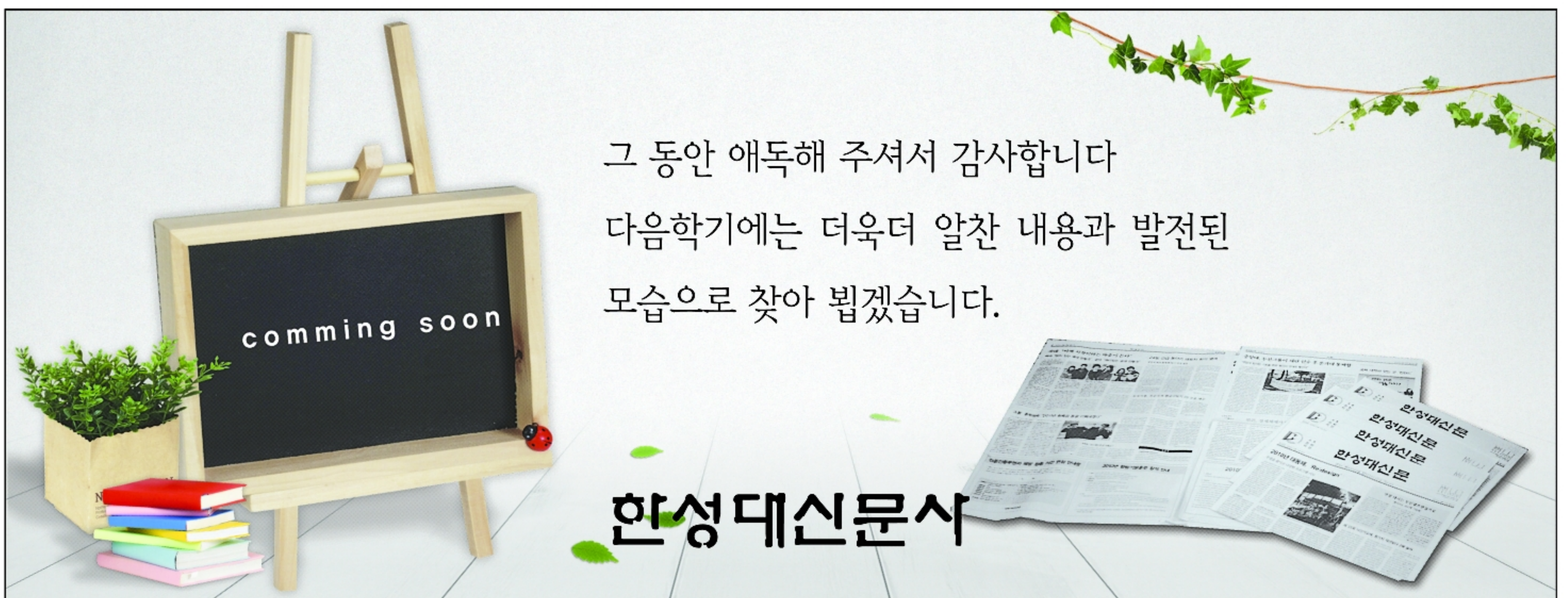
로써 보존연한이 경과한 잡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취지로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은 물론 교수님들까지 도서관 문이 열리기 전부터 원하는 잡지를 가져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며 "구성원들의 호응도도 좋다"고 말했다.

올해는 학생회나 공개기구에 먼저 배부한 후 개인에게 남은 잡지를 배부하던 작년까지의 진행방식과 달리 단체와 개인 상관없이 교내 구성원 모두에게 선착순으로 원

하는 잡지를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정미영 차장은 "작년까지는 단체가 유용한 자료를 먼저 가져 버리니 개인이 가져갈 만한 유용한 자료가 부족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배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기 잡지의 경우 개인이 종별 수량의 25%까지 배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잡지를 배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기자 755914@hansung.ac.kr



그 동안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학기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과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한성대신문사

학회실 이용 태도 변화 절실히

학회실 내의 흡연, 음주 공공연히 이뤄져

학생들의 자기공간이자 휴식공간인 학회실이 적절한 관리의 부재로 일부 학생들에게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꺼림'의 공간이 됐다.

대중제가 끝난 이후, 학회실에는 학생들이 축제에 사용했던 부탄가스, 프라이팬 등이 먼지와 함께 그대로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또 학회실을 이용하면서 책 등의 소지품을 정리하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 한 뒤, 청소를 하지 않아 학회실이 제 역할을 못할뿐만 아니라 위생,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진리관의 한 학회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4학년 학생은 "이곳에 오는 학생들도 대부분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지금까지 학회실 흡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없었다."고 말하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이어 "흡연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내 건물에서는 흡연은 불가능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



▲ 공학관에 있는 두 학회실의 어지러운 모습이다

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부탄가스가 학회실에 방치될 경우, 가스로 인한 화재가

발병에 걸릴 위험을 가져다 준다. 익명의 한 학생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맥주병이 박스 채 쌓인 학회실을 누가 좋게 보냐"며 "학회실이 사적인

로했다. 그는 이어 "학회실은 학생회 사람들만 이용하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학생회와) 관련 없는 학생들이 들어가기에 불편한 공간이 되었다"며 "소속과 학생이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위의 경우처럼 관리가 되지 않는 학회실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이 학회실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악순환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학회실의 관리 문제에 대해 장호철(경영 4) 총학생회장은 "학회실은 학생회 학생들이 물론 일반 학과 학생들도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다"며 "학생회 및 학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학기에 시행할 스터디라운지 치우기 캠페인을 펼칠 때 학생회실 관리 문제를 같이 연계해 학생들이 의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신 기자 phsllan@hansung.ac.kr

일부 학생, "들어가기 불편한 공간"

능성이 있다. 또 좁은 공간에서의 흡연은 학생들의 건강에 해가 되어 각종

이용 공간으로 변해, 용도와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

캠퍼스 보험 1인 1사고당 3백만원까지

작년 2월 송은선(무용 4)학생은 수업 중 부상을 당해 캠퍼스 보험 혜택을 받았다.

그는 연습 중 점프를 하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어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로 인해 치료비 및 수술비로 1인 한도 금액인 300만원을 모두 보상받았다. 송은선 학생은 "수술비 뿐 아니라 재활비가 많이 들어 급전적으로 부담이 들었는데 캠퍼스 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캠퍼스 보험은 우리 대학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학생 복지 제도이다.

신경민 MBC선임기자 초청강연 열려

지난 5월 18일, 미래관 DLC에서 학술동아리 샘들과 우리학교 교양학부의 공동 주최로 신경민 MBC 선임기자의 초청강연이 '방송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귀숙(교양학부) 교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언론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강연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신경민 기자는 "방송은 현실을 다루지만 화면에 나오는 것

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화면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화면 너머에 진실을 만들어 내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 이면의 모습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시간에 대해 관심도 없는 언론과 심층 취재를 하는 언론까지 나뉘기 때문에 '팩트'가 달리는 경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신경민 기자는 "방송은 현실을 다루지만 화면에 나오는 것

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 대학은 1인 1사고당 3백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약 1백만원 정도인 타 대학에 비해 담보금액이 크다.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경위서, 재학증명서, 본인 통장 사본,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음주 및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계없이 보상이 불가능하다. 집회 등으로 인한 손해, 폭력으로 입은 손해, 선전적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해진 시간이 넘어가도록 질문이 이어졌다.

진실과 사실을 구별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사인의 진실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언론을 소비해야 한다"며 "진실을 구별해 낼 좋은 토론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배우자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최병호(역사문화 1)학생은 "언론 문제에 대해 언론인으로서의 분석을 들려준 것이 가장 유익했던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민혁 기자 daja@hansung.ac.kr

나라사랑 감사행사 열려



지난 4일, 낙산공원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 감사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본교 재학생 중 보훈장학 대상 학생과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학원 이희순 이사장은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를 위해 힘쓰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개최 목적을 전했다.

이어 정주택 총장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애국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좀 더 애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뜻을 되새기자"고 말했다. 이날 보훈장학 대상으로 참석한 김민경(행정 2) 학생은 "보훈 가족

을 위해 행사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고 오게 됐다"며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지만 앞으로 이들과 같은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민경 학생의 아버지 김세영 씨는 "학교에서 이번 행사가 첫 번째 행사라고 했는데, 그런 귀한 자리에 불러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대원(정치 2) 학생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미자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보국훈장 광복장 등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학교에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 호국정신을 기를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 주최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6.25 사업단의 후원으로 열렸다.

박형신 기자 phsllan@hansung.ac.kr

상반기 졸업앨범 촬영 끝내

사진현장 확인시스템 약속 못지켜

지난 5월 10일부터 4일간 졸업준비위원회의 진행으로 졸업앨범 촬영이 진행됐지만 이번에 선정된 업체인 '광개토대왕'은 졸업앨범 품평회 당시 내세웠던 현장사진 확인 시스템을 지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점에 대하여 김희선(무용 4)학생은 "촬영 후 사진을 확인하는 것도 없이 평범하게 촬영을 했다"며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쁜지만 업체에 대한 특강과 장점을 알 수 없어 조금 아쉬운 촬영이었다"고 말했다.

허준식 (경영 4)졸준위장은 "촬영날

노트북으로 찍은 사진을 실시간 확인하는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대신에 좀 더 많은 컷의 사진을 담아내 각각의 촬영마다 세 장의 사진을 웹에 올려 개인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컴퓨터공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는 졸업앨범의 일정이 변경되어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촬영 당일 우천으로 인해 졸업앨범 일정이 24일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목정균(컴공 4)학생은 "촬영 당시 우천으로 인해 타자에 비해 소수의 인원

인 20명 정도가 촬영했는데 실내촬영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허준식 졸업위원장은 "기상상의 오보로 인해 힘들었다"며 "24일은 험사리 비가 그치지 않아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앨범촬영을 할 때 실내촬영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메이크업 장소가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장소 대여문제가 힘들었다"며 "장소문제는 차후에도 발생할 문제가기에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혜연 기자 odory1@hansung.ac.kr

제4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본선 대회 열려

지난 5월 20일 미래관 DLC에서 제4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본선이 열렸다. 이 대회는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지능 주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문제 해결 능력,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과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계속된 행사다. 5월 3일부터 17일까지 PPT 파일로 접수 받아 시행된 예선에서 35명의 학생들은 '20대 유권자 참가율 증가',

'저출산 고령화의 대안', '제시된 자료의 분석과 극복방안'이란 세가지 주제로 효과적인 주제전달, 내용의 창의성 등 프레젠테이션 작성능력을 평가 받았다. 본선에 진출한 13명의 학생들은 7분 동안 논리적 실득력 및 전달력 집의에 대한 응답 태도 등의 발표능력을 평가 받았으며 사고와 표현 위원회는 최우수상(1명), 우수상(4명), 가작(8명)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인철(기계3) 학생은 "이번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적어 내가 실력보다 더 큰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사회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열리는 5회 대회에서는 더욱 많은 학생이 참가해 좋은 경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대 기자 deallee@hansung.ac.kr

우리학교 주거래 은행 IBK로 변경돼

우리학교의 주거래 은행이 6월 6일자로 IBK로 변경됐다. 지난 5년간 우리학교와 주거래은행으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해온 우리은행은 지난 5일 운영을 종료했다.

우리학교는 우리은행이 계약 만료되는 점을 앞두고 시중 은행에 계약의사를 문의했으며, 그중 우리은행과 IBK를 포함한 3개의 은행에서 계약의사를 나타내 우리학교와 계약협상을 진행해왔다.

당초 우리학교는 주거래 은행이 변경될 경우의 발생하는 불편과 금융거래를 하는 장소로서 지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은행과의 재계약이 가장 유력했다.

하지만 IBK가 우리은행에 비해 서울소재의 지점수가 많으며 우리은행에 비해 많은 발전자금과 유리한 자금

운영조건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됐다.

IBK에서는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운동장에 콘테이너식 이동점포를 설치하였고, 이달 3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그리고 오는 21일 우리은행이 있던 자리에 정식으로 입점하게 된다.

이선준(재무회계팀)팀장은 "우리학교는 우리은행과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IBK측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게 됐다"며 주거래 은행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팀장은 "IBK가 새로운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우리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동규 기자 donggyu@hansung.ac.kr

동정란

이상원(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교수 이 교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자문위원(문화예술자문위원회, U-IT자문위원회, 브랜드마케팅자문위원회)으로 위촉되었다.

정성훈(정보통신공학과)교수 정 교수는 오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ITC-CSCC 2010 학술대회에서 'Fast Evolution of Individuals through Competition of Multiple Offsprings in Genetic Algorithms'의 주제로 논문발표를 할 예정이다.

제 1 회 한성대학교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개최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010년 4월 28일(수)에 개최된 창업지원단 발대식에 이어 창업지원단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1회 한성대학교 창업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I. 개요

1. 목적

- 한성대학교 재학생들의 참신한 창업아이디어와 우수 신기술을 초기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미래 청년기업을 양성하고자 함.
-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동아리 발굴과 정보제공 등 성공적인 학생창업의 모델을 제시하여 교내 창업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 한성대학교 캠퍼스를 성공 창업의 요량으로 변화시켜,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창업에 역점을 두어 대학과 정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의 시발점이 되고자 함.

2. 참가대상 및 분야

- 참가대상 : 한성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 창업팀(최소 3인 이상의 팀)
 - 사업화 가능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동아리
 - *창업동아리 :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사업 아이디어의 창출과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함께하는 모임으로 활동공간이 확보(계획된) 경우 가산점 부여
 - 정부기관 선정 아이템 또는 외부 공모전에 입상한 아이템 제외
- 참가분야
 - 정보통신(S/W, H/W개발, 인터넷, 게임), - 전기/전자(자동차, 부품포함),

- 기계(자동차, 부품 포함), - 화학(환경, 생명공학, 식품, 석유 포함),
- 생활 및 지식서비스(생활용품 관련, 문화, 광고, 출판, 디자인, 캐릭터 포함)
- 기타 다양한 콘텐츠 분야

II.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10. 9월 말
2. 접 수 처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우편관 613호, 02-760-5860))
3. 접수방법 : 6월말 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hanbior.kr)에 공지
4. 신청서류
 - 사업화 관련 서류
 - 참가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창업사업계획요약서(www.hanbior.kr에 공지)
 - 중형 서류 : 팀원의 재학증명서 각 1부
5.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 일 시 및 장소 : 10월 중(후후 www.hanbior.kr에 공지)
 - 방 법 : 서류심사 후 통과된 팀에 한해 발표심사
 - 발표시간 20분 (발표 15분, 질의 응답 5분)
 -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산출평균

III. 시상 및 창업지원 내용

1. 시상내용
 - 각 팀별 아이템 개발비 300만원 내의 지원(5~7개월 선별 예정)
 - * 시상내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시상자에 대한 창업지원
 - 한성대 창업전담관의 지속적인 창업상담
 - 전문가 인력 Pool을 활용한 무료 컨설팅 추진 예정
 - 정부기관 주최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참가지원
 - 2011년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35백만원~50백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 신청 의무 없음(신청 지도(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산학협력단

기업에 사회적책임 요구하는 압박 필요해

삼성반도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질병 모른 척 시민사회와 정부의 끊임없는 감시와 평가 필요

국내 기업들이 기업 윤리를 지키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비판받고 있다. 자사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불법 대출 등의 비리를 저질러 투명하지 못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반도체와 한국타이어다. 삼성반도체의 경우 노동자들이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 지킴이 '반올림'을 만들어 삼성반도체 직원들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올림에 제보가 들어온 삼성 반도체 직원의 질병은 백혈병, 림프종, 유방암 등으로 총 47건에 달하며 반올림 측은 이외에도 회사 측에서 숨긴 더 많은 질병사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의 경우 한국타이어 의문사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암 질환 및 중증환자가 108명, 유기화합물 중독 및 중증질환 추정환자가 65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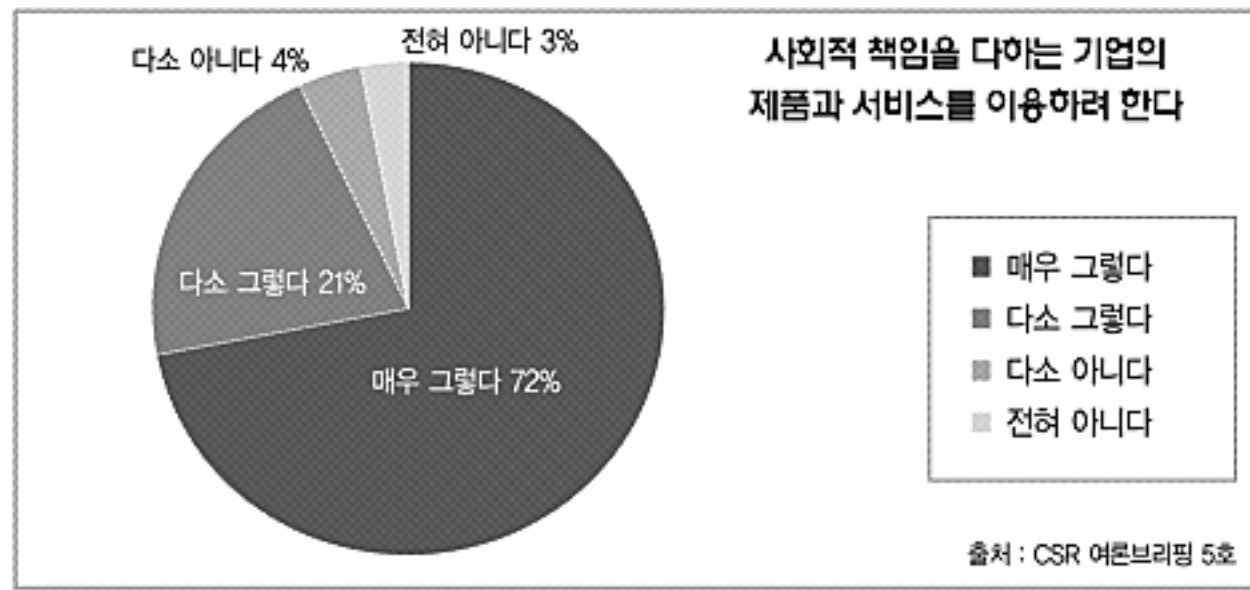
기업책임시민센터 김용구 사무국장(이하 김 사무국장)은 "국내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수준은 해외 선진국보다 우수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들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 준수와 윤리적 책임으로 인해 불안전한 현실이다."며 국내 기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자금을 이용한 불법, 편법 경영권 승계 등 투명하지 못한 기업 지

배구조 역시 국내 기업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일이 이견회 회장의 복귀이다. 비리로 인해 회사를 떠난 이견회 회장이 삼성을 위기에 빠뜨렸으며 경영 복귀를 한 사례는 윤리적 책임의식 부족을 엿볼 수 있는 대표 사례이다.

김 사무국장은 "기업이 법 준수와 윤리적 책임, 지역사회의 환경과 노동 인권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관계를 맺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국내의 경우 폐쇄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성격이 강하다. 좀 더 발전된 기업 체계를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점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CSR평가주식회사 박주원 상무 이사(이하 박 상무이사)는 "외국인 투자자와 종교계 투자자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풍산, 한화에 대한 노르웨이 연기금의 투자 철수를 예로 들었다. 그는 "노르웨이 연기금은 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 기업에만 투자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들은 풍산과 한화에 투자를 하면서 대인 지포 무기를 만드는 일을 중단하라는 메일과 편지를 일체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살상 무기를 만드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노르웨이 연



기금은 해당 업체에 대한 투자자본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일로 노르웨이 연기금은 풍산과 한화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고, 이로 인해 풍산과 한화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삼성 반도체는 외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노동자 질병 문제에 대한 질의를 담은 편지와 이메일 등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답을 준비 중이다. 또한 미안마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던 대우에 전경 중인 미안마에서 자원을 수입하지 말라는 외부 투자자들의 메일을 받고 대우의 수입라인을 정비하기도 했다. 이처럼 외부 투자자들의 경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투자 요소로 보며 투자자본을 무기로 기업들을 압박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박 상무이사는 "기업은 사적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정부에서 기업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기업은 리스크, 이득, 손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적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을 움직이기 위해

서는 불매운동과 같은 압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책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게 현실이지만, SRI펀드(사회 환경, 윤리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운용방식을 사용하는 펀드) 등을 통해 윤리적 요인들을 보고 투자하는 흐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며 "중개계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 유럽과 같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김 사무국장은 대학생들에게 "대학생은 현재와 미래의 투자자이면서 소비자이다. 따라서 투자와 소비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으며, 투자와 소비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다"며 "그것이 바로 '사회책임투자'이고 '윤리적 소비'다. 기업은 투자를 받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우리의 요구에 맞춰 경영활동을 하게 된다."고 대학생들의 올바른 투자와 소비를 요구했다.

박형진 기자 phstilan@hansung.ac.kr

In the field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중한 당신의 한 표 행하셨나요?



▲ 지난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한성고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지난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이 선출됐으며 총 54.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한성고에는 투표소가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이 투표 마감시간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이날 투표를 위해 한성고로 찾은 신지현(39살)씨는 "교육 부분에서 무상급식, 공교육 강화 공약을 보고 투표했다"며 "짧힌 분들이 공약에서 내건 것처럼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 투표자들 중에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성고에서 투표자 안내를 한 김인애(17살)씨는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투표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다. 하지만 투표하러 오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은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많았다"고 말했다.

물론 20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남승주(27살)씨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을 뽑기 위해 투표하러 나왔다"며 "공약을 보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이를 뽑았다"고 말했다.

한 여대생(23, 고려대)은 "교육에서는 교육비리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분을 택했고, 광역자치단체장에서는 여당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이에 투표했다"며 "대학생들이 한 표 한 표의 중요성을 알고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회부

사회문제로 통하다

'세계화' 흐름에서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이 말은 2004년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정씨가 지하철도에 몸을 던지면서 남긴 유서에 쓰여 있었다. 그는 대구의 어느 뷰티공장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체불 당하고, 결국 돈이 없어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다. 그 후 비자 만료와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고 이러한 신변에 대한 비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21세기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주류 담론은 세계화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로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세계화는 그야말로 '자본의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현재 지구상에서 1억 명 정도가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추산한다. 그들은 낮은 임금과 노동권 및 인권 침해라는 부당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당할 뿐만 아니라 구금이나 체포 등 심각한 위협을 경험하는 것도 다반사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최소한의 인

간적 권리로 누리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서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그 어떤 공공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고, 고용주에게 임금을 착취당해도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고 싶지 않고, 폭행을 당해도 경찰에게 신고할 수 없다.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2009년 말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대략 115만 명 정도라고 한다. 그 중 50만 명이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저숙련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약 10분의 1 정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관광비자나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하고 비정규 노동시장에 편입된 이들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예로 2008년 9월 법무부가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50만 명보다 더 많은 68만 명의 저숙련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약 3분의 1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유일한 진실은 어쩌면 '세계화' 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

면서 새로운 부의 창출 가능성을 부각시킨다. 그들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세계로 진출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인간(노동력)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보다는 자본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고 속박당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력을 통해 생존하는 지구상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민(國民)'을 넘어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이주노동자로 살아가 수밖에 없는 일연한 현실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이주노동자(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멸시가 존재한다. 그것은 과거에는 인종적 차별에 기인했지만,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 부족한 노동시장에서 자국민들이 누려야 할 노동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소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밥그릇 싸움을 부추기거나 이용하는 자본에 대한 저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식

하는 것이다. 소위 다국적기업이나 금융업 종사자, 백인 유학생 등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3D 업종에 종사하는 저임금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절실하다. 최근 '다문화' 담론이 많이 회자되면서 '다문화사회의 아름다운 공존'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사회의 초상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 국적, 언어, 문화가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화해하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하고, 충돌하고, 대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대립적인 과정을 생략한 채 무턱대고 어떤 결과로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을 가능하다고 호도하고 있는, 어쩌면 업적 중심의 전 시행정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배제와 추방의 논리가 작동해서 형성된 다문화사회는 아름다울 수가 없을 것이다.

수십 년 전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도 사람'이라는 죽음의 절규가 있었다. 이제 '이주노동자도 역시 사람'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때가 되었다.

권경우 문화평론가

낙산만평

류연수(애니제 품 3)



행복이 열리는 순간마다 IBK기업은행이 있습니다

평생 IBK 당신도 IBK

사설

학습능력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대학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계속 새로운 지식과 어학을 연마해야 한다. IQ가 낮거나 두뇌 노화가 시작되었다고 위축될 필요 없다. 기억을 확장하는 해마는 7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면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된다.

학습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가 보다 관리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다. 몇 가지 관리요령을 이야기 해보자. 읽기할 내용을 종이에 내용을 수십 번씩 쓰는 학생이 있다. 바보 짓이다. 서너 번 쓸 때 까지는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순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쓰기는 서너 번이면 족하다. 그 대신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이 좋다. 시험만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 다음 틀린 것들을 다시 써 보고 또 시험을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방학이 되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시작 시점을 중시하는 사람은 적다.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습 효율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성장곡선처럼 올라간다. 예컨대 처음 학습을 시작하면 내

용도 낮설고 강사의 스타일이나 생활 리듬이 안맞아 어려움을 겪는다. 한 달 정도 지나야 학습에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7월에 학원 등록을 하면 휴가 한번 가지 않고 공부해도 8월이나 되어야 비로소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개강이다. 이례서는 평생학습의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 방학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면 5월에 학원을 알아보고 6월 초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학기말 고사와 겹쳐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7, 8월 두 달 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방학이 끝난 후 달라진 자신을 체감할 수 있다.

매일 공부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살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 그럴 경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책하면 안된다. 그보다는 계획대로 공부를 했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트레스는 학습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관리하려고 들면 많은 대목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학습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성공은 관리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의화청

두 우물을 파는 사람

조난숙 교수 (교양학부 / 수학, 상담심리학 전공)



아직도 선명한 대학 새내기일 때의 기억이 있다. 새로 입학하여 캠퍼스를 오가다가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 서로의 소식을 밝히는데, 나는 자연계열이었고 친구는 인문계열이었다. "우리는 인문학을 취미로 공부할 수 있지만 너희는 자연과학을 취미로 공부할 수 없잖아?" 농담처럼 질문을 던졌던 나의 말이 그 친구는 "우리는 자연과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너희는 인문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수했다. 나는 그대로 말문을 잃었는데, 이상할 만큼 그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방학이 끝난 후 달라진 자신을 체감할 수 있다.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이 숫자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더욱 새로운 이유는 수학공부를 25년 넘게 해왔던 내가 몇 년 전부터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 불문학이 전공이었던 수련이란 친구를 어디서라도 만나게 되면 대답할 말이 생겼다. "자연과학을 25년 공부하고 나서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힘들겠...?" 사실 이런 우문보다는 그 때의 대화가 내게 얼마나 유익했는지를 고마워하며, 지나간 시간들을 나누고 싶다.

5년 전 따스한 오월의 봄날이었다. 연구실에서 풀리지 않는 수학문제도 고민하며 오해를 보내다가 앞으로의 내 인생을 세어 보게 되었다. 큰 말이 없으면 정년까지 남은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 그 시간이 아득하게 느껴지면서도, 이대로 살면 안되겠다는 긴박감이 밀려왔다. 수학을 힘들어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계속 수학의 중요함을 역설하며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서 행복하고 싶었다. 교양과목으로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학생들과 삶을 나누는 시도도 해보고, 강의실 밖에서 만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 행정과 봉사 주라는 행정에 관심이 없었던 나로서는 고민은 어떻게 교육하고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의미 있고 소통이 가능한 연구

를 할 수 있을까... 이미 내 전공분야인 수학에서 연구의 대가가 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에 나의 고민은 꽤 깊었다.

다음 해 나는 상담심리학의 석사과정을 시작했고 현재, 박사과정 3학기를 보내고 있다.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 12년 만에 전혀 생소한 학문을 두드렸던 셈이다. 그 때 느꼈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희망 등을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누구는 또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수학교수로서 합당한 행위를 묻기도 하며,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내게 한다.

소설가 김형경씨의 에세이 집에 '천개의 공감'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 제목을 빌려 말하면 내게는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백개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그 이유를 나열하기보다는 이런 삶의 모습도 있다는 모델 제시자로 우리 한성대 학생들에게 보여지고 싶다. 한 우물만 파는 것만이 꼭 길이 아니라는... 특히 앞으로 대학

때의 전공을 살리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위로도 주고 싶다. 비록 자신의 전공이 취업이나 앞으로의 인생에 연결되지 않게 보일지라도 대학원 동안의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자신의 또 다른 DNA로 남는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다.

수학을 공부한 후에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문학만 공부하거나 자연과학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세계를 사는 즐거움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소독은 꿈이 내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동감이다. 아직 내게 할 일이 참 많구나! 이 과정도 즐겁지만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들의 심리를 공감하며 때로는 치료도 하고 싶고, 진로로 인해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효과적인 가이드도 주고 싶다. 남들이 안가본 길을 가는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내게도 이런 계획정신이 살아있음에 또한 감사할 뿐이다.

한 줄 댓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내 곳곳에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지켜지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 학생들이 의견을 댓글을 달아주세요.

김영권(행정 4)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좀 더 눈에 띄게 표시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지키지 않을까 싶네요.

김영근(학과, 학년 미계제)

그냥 연기 감지기 달아서 담배연기도 잡도록 하는게 어떨지요? 경보 울리면 곧바로 현장검거 되지 않을까요?

최준현(메티 3)

인식을 잘 못하는 거 같으니 눈에 잘 띄도록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조현원(정통 1)

제 생각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옳지 않다는 것이고 사실적인 글귀를 곳곳에 붙여 놓는게 어떨까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흡연자 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셔야 할 부

본인것 같네요. 고등학교처럼 강제성을 띠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 강제성도 필요하겠지만요.

이우창(경제 4)

먼저 교수님들께 금연구역에 대해 교육하고 교수님들께서 다시 학생들에게 교육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네요.

임양재(메티 3)

비흡연자는 담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여러 곳에 붙이면, 흡연자의 양심에 맞는 것도 관습을 거 같습니다.

김한여울(한국어문 4)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게 아닐까요. 금연 표지를 크게 달고 재떨이도 없애고 캠페인을 표방한 사람에 의한 감시를 꾸준히 하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줄댓글' 관련 게시물은 '낙산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39호 당첨자는 조현원(정통 1)학생입니다.

독자투고

안녕하세요. 한성대신문에 게재될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한성대학교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불편했다' 등 학내·외 이슈들에 대한 여러분의 주장 혹은 '한성대신문'을 읽고 느낀 점 등을 4,5매(900자) 분량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는 press@hansung.ac.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원고는 본지 여론면에 게재됨과 동시에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성대신문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재학생을 위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 1. 교육목적 :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재학생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확립을 위한
- 2. 교육대상 : 한성대 재학생
- 3.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한성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http://www.hansunggender.org>)에 접속하여 「성희롱과 성폭력 게시판 -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학생용)」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하여 관련 자료를 숙지하여야함.
- 4. 교육기간 : 2010년 6월 1일 부터 2010년 7월 31일 까지

- 양성평등상담소 -

2010학년도 1학기 강의만족도 실시 안내문

- 2010학년도 1학기 인터넷 강의만족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은 모두 강의만족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만족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강의만족도를 실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만족도 자료는 향후 수업의 질적 개선이나 신규과목 개설등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1. 강의만족도 일정

- 2010년 6월1일(화) 10:00 ~ 7월3일 (토) 23:50

2. 강의만족도 대상 강좌

2010학년도 1학기 학부 전체 개설강좌를 대상으로 강의만족도를 실시하며, 학생은 강의만족도 시스템 접속후 본인이 평가해야 하는 개설 강좌목록에 대해 모두 강의만족도를 실시하여 강의만족도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3. 강의만족도 참여 할 경우

- 강의만족도 평가를 종료한 학생은 2010년 6월 25일(금)부터 성적이 입력된 과목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강의만족도 평가를 하지않은 학생은 7월 8일(목)이후에 성적확인가능

4. 강의만족도 실시방법

- * 우리대학홈페이지 (<http://www.hansung.ac.kr>) 접속후 강의만족도 공고문 "2010학년도1학기 강의만족도" 클릭한다.
-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학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다.
-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 메뉴 강의만족도 클릭 → 대상과목 클릭 → 평가후 저장
- * 강의만족도 강좌목록 화면에서 강의만족도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다.
- * 수강신청 한 모든 과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모두 강의만족도를 실시한다.

5. 강의만족도 미 참여 할 경우

- 2010학년도 1학기 성적 확인불가하며 우편으로만 확인이 가능함- 2010학년도 1학기 성적은 2010년 7월 8일 (목)상부 예정.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강의만족도를 통한 강의의 질적 개선과 정확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처장 -

사람을 만나

한국어문학부 '에디즘'의 이진수(한국어문 3)학생

영상촬영 능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획이 더욱 중요



도로교통안전 공사에서 주최하는 도로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결과, UCC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우리학교 한국어문학부 소모임 에디즘의 4명의 학생이 선정됐다. 그 중 이진수(한국어문 3)학생을 만나 이번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같이 모두 흔히 떠올리는 주제가 아닌 공모전을 주최하는 '도로교통안전 공사가 원하는 작품이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발상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들은 주제를 꼬리 물기 근절에 대한 홍보를 시작한 시점이 때문에 '꼬리 물기 근절'이란 주제로 제작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의도와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

다려 겨우 촬영했다고 한다. 이번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작품을 완성해서 조교와 교수님께 보여 드렸더니 영상은 좋지만 기획부터가 잘못되었다는 평을 들었기 때문에 정려상이라도 수상을 한다면 다행이라 생각했다"며 "최우수상인 것을 확인하고 자신과 팀원 모두 놀랐다"고 말했다.

기자수첩

신문사의 선물 '동료'

한성대신문 제439호가 나왔다. 이번 신문은 1학기 마지막 신문이면서, 기자의 마지막 신문이다. 기자는 이번 학기를 끝으로 한성대신문사를 퇴임해, 더 이상 기사를 쓰지 않게 된다.

수 있었던 데에는 '신문사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티격태격하는 동기 '김명하' 편집국장, 얼굴만 보면 잔소리하는 잔소리꾼 하늘선배, 병찬선배, 선희선배. 나가고 싶은 때마다 머리 속에 떠오르는 후배 상미, 예진. 갖 들어온 세내기 동규, 민혁, 영훈, 정대. 이외에도 신문사 간사를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정미선배, 고생한 동일선배, 성정선배 등...



대학원 인터뷰

일반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전공 석사과정 김정욱 원생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뚫은 취업문'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정욱 원우는 청년실업난 시대에 대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

난을 뚫었다. 올해 3월, 건국대학교 제품 및 환경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그는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입학과 동시에 아우딘퓨처스라는 화장품용기 디자인전문 회사에 취직했는데, 여기에는 그의 화려한 수상 경력이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로 결심했다. 이후 그는 시각디자인과 광고 디자인 등을 고려하던 중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 미디어디자인에 끌렸으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

할 수 있는 안경이나 가구와 관련된 공모전에 출품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현재 미디어디자인에 대해 더 많은 배움을 얻기 위해 노력중이다. 석사과정이 끝난 후에는 박사학위에도 도전할 예정이며 이후 영국이나 독일 쪽으로의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학기의 팜방울이 담긴 사진전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교양과목 디지털사진과 영상(홍건표 교수) 수업의 사진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야간과대 김동민(경영 2)학생은 "수업 초부터 사진전을 목표로 해 수업 마무리 차원에서 사진전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6 유니버시티디자인 공모전 입선을 시작으로 2007 안경디자인 공모전 특선, 2008 명랑원구디자인 공모전 동상, 2009 한글의자디자인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열린 한국 OCK 3D안경디자인공모전에서는 3D인체 안경디자인 부문에서 영화터렛과 3D안경을 접목한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렇듯 그의 화려한 경력 속에는 소비자가 외형만 보고도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신만의 철학이 담겨있다. 그는 "외형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하며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여러 대회에 참가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다. 그는 이제 28살의 청년이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끝없이 노력하였고 이는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과 졸업과 동시에 취직 등 결과로 나타났다.

이메진기자 odory11@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6월 7일(월요일) ~ 6월 11일(금요일))

일자(요일)	구분	식단					
(6/7) 월	카페테리아	쌀밥/잡곡밥 (500/600)	콩나물비빔밥(우유만:호주산) 2000	돼지기 달걀음용 1000	팽이버섯진장국 200		
	과일 (300)	콩치구이 900	탕수육 1000	공중떡볶이 100	황도 400		
	김치(국내산) (200)	클링클릿 700	느티리비섯볶음 400	파래김지반 200	숙주나물무침 200	샐러드 400	
	쌀밥/잡곡밥 (500/600)	푸꾸미오징어덮밥 2000	유부우동 1000	콩나물국 200			
(6/8) 화	카페테리아	과일 (300)	순대야채볶음 1000	라조육 900	중무김밥&오징어무침 1000	파인애플 400	
	김치(국내산) (200)	스모크햄전 700	오징어볶음 400	비빔나물무침 200	콩나물무침 200	샐러드 400	
	쌀밥/잡곡밥 (500/600)	스파게티&스파게티정식 2500	육개장 1000	유부장국 200			
	과일 (300)	돈육곤약장조림 1000	길비산식 1200	재육볶음 1000	후르조키테일 400		
(6/9) 수	카페테리아	김치(국내산) (200)	김치전 700	파래김지반 400	열무된장무침 200	콩나물무침 200	샐러드 400
	쌀밥/잡곡밥 (500/600)	날치알오징어채비빔밥 2100	돈육김치찌개 1000	어묵국 200			
	과일 (300)	돈갈비찜 900	비엔나계집볶음 1000	김겨림말이 1000	파인애플 400		
	김치(국내산) (200)	아채크로켓 700	진미채무침 400	청포묵김무침 200	단무지무침 200	샐러드 400	
(6/10) 목	카페테리아	쌀밥/잡곡밥 (500/600)	오므라이스 2000	부대찌개 1000	미역국 200		
	과일 (300)	오꼬노미야끼 1000	삼치구이&데리야끼 900	생선까스&샐러드 900	황도 400		
	김치(국내산) (200)	해물파전 700	콩자반 400	미역줄기볶음 200	취나물무침 200	샐러드 400	
	쌀밥/잡곡밥 (500/600)	오꼬노미야끼 2000	상치구이&데리야끼 900	생선까스&샐러드 900	황도 400		
(6/11) 목	카페테리아	과일 (300)	오꼬노미야끼 1000	삼치구이&데리야끼 900	생선까스&샐러드 900	황도 400	
	김치(국내산) (200)	해물파전 700	콩자반 400	미역줄기볶음 200	취나물무침 200	샐러드 400	
	쌀밥/잡곡밥 (500/600)	오꼬노미야끼 2000	상치구이&데리야끼 900	생선까스&샐러드 900	황도 400		
	과일 (300)	오꼬노미야끼 1000	삼치구이&데리야끼 900	생선까스&샐러드 900	황도 400		

※ 식자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가로

- 가 로: ① 애인이 있거나 결혼한 남자를 뜻하는 신조어. ②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 통칭 남대문(南大門)이라고 불린다. ③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④ 주로 적란문(積亂雲)에서 내리는 지름 5mm~10cm 정도의 얼음 또는 얼음덩어리 모양으로 내리는 강우현상. ⑤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정례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함. 5월의 셋째 월요일. ⑥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적당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 냄. ⑦ 외출한 곳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기 위한 식사를 뜻하며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 음식에 반찬을 곁들인 밥.

정답자 발표

남보래(연희 3) 010-XXXX-4823
홍승익(경영 1) 010-XXXX-1753
원소름(지정 4) 010-XXXX-8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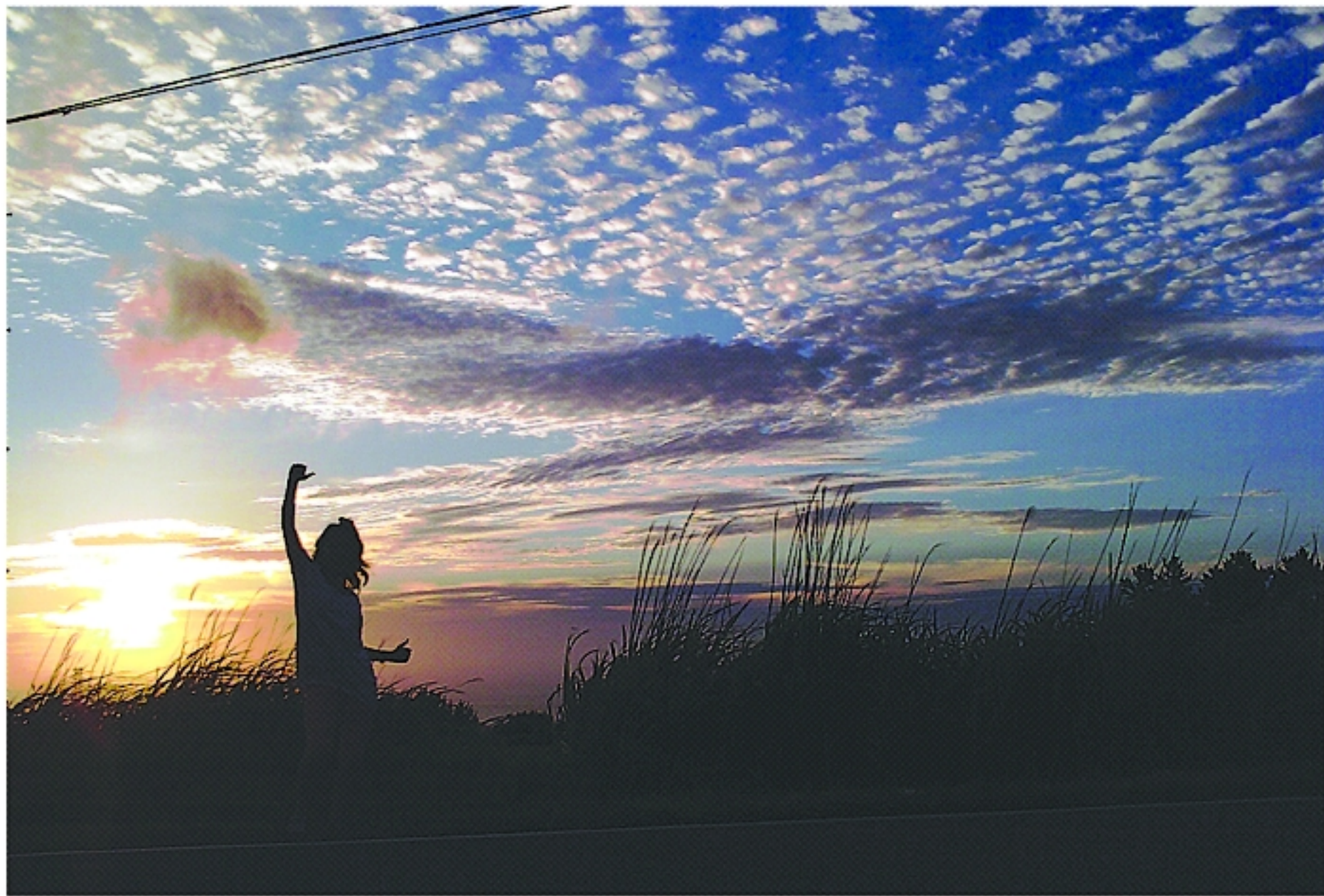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전화번호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02-760-4186)

학과(학과) 이름: 연희차

①	①			②		③
			②			
	⑥			③		⑤
④	⑤					
			⑦			
	⑤					
						④
				⑦		



제4회 사진공모전



김가영 (패티 3) "외침"

금상



이종진 (멀티 3) "수호"

동상



최준결 (인테리어 4) "엄마"

은상



신창용 (부동산 1) "선유도의 하늘"



김안나 (행정 4) "줍아보이는 길"



박정현 (패티 3) "해지는 저녁 다리"

남 / 사 / 평



김경님 (경향신문 편집국 / 사진부 7기)

제4회 한성대신문사 사진공모전에 수준 높은 작품들을 출품한 아마추어 학생작가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매년 사진공모전을 통해 급변하는 세상의 모습과 사진영상의 흐름에 소통하는 한성대의 다양하고, 창조적 젊은이 육성에 가슴이 따뜻해 집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한 장의 프레임 안에 나의 얘기가 들어있고 아름다운 미학적 정서가 들어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묘한 매력이 들어있다고들 합니다.

이번 심사에 수상하게 된 작품들뿐 아니라, 아깝게 낙선한 작품들도 아마추어이지만 상당한 테크닉과 정성, 작가의 수고가 많이 묻어있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금상을 수상한 김가영님의 '외침'은 아름다운 하늘색을 놓치지 않으려한 노력과 함께 자칫 단순한 풍경으로만 서터를 누를 수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 젊은이의 역동적인 모습을 실루엣으로 넘치지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표현하여 사진의 미학과 젊은이들에게 힘찬 도약과 도전정신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은상을 수상한 최준결님의 '엄마'는 자칫 기념사진 같은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깊은 주름, 거친 손등에서 조금 벗어나 도시적인 젊은 어머니! 그렇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런 행복한 웃음을 잘 표현 한 작품입니다. 동상을 수상한 이종진님의 '수호'는 우리가 자칫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에서 주불상보다 그를 지키는 석상의 고즈넉한 모습을 주불상을 아웃포커스 시키며 한 프레임에 적절하게 나타내 주며 사진을 보는 이에게 다시한번 주불상을 지켜주는 석상의 의미속에 우리의 삶도 생각하게 해주는 아마추어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멋진 사진이었습니다.

수상은 못하였지만 박정현님의 한강의 아름다운 해질녘 모습을 한강 다리과 2분하여 훌륭한 테크닉과 코발트 빛 하늘을 표현하였고, 김안나님 '줍아보이는 길'은 도서관에서 설정을 만들어 취업의 문, 혹은 인생의 좁은 문을 표현하려는 모습이 어렵지만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끝으로 한성대신문사 사진공모전에 출품한 학생들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다음 공모전에도 훌륭한 작품들로 넘칠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 / 상 / 소 / 감



김가영 (패티 3)

안녕하세요. 패션디자인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가영입니다. 우선 금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외침'은 친구와 8박 9일동안 전국을 여행하던 도중 마지막 날에 찍은 사진인데 마지막 여행지인 제주도에 찍은 것입니다. 여행기간이 참마기간이었지만 저희는 온 좋게도 비를 피하며 다녔습니다. 이날도 서울은 폭우로 난리가 났지만 제주도의 날씨는 32도를 넘을 정도로 짹짹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다보니 몸은 많이 지쳤지만 마음은 첫날과 같이 들떴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마무리하려 가는 도중 풍경도 멋지고 노을도 너무 예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면서 소리를 지르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너무 멋진 시간과 장소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친구와의 추억을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하게 되어 기쁘다. 또 이 추억으로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사진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사진에 대해 더 애착을 느낍니다.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사진을 취미로 갖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고 멋진 놀이 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자가치유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지친심신을 간단하게 풀어주는 마사지요법



출처 : '현대인의 생존전략, 머리마사지'

집중이 안될 때는 두피에 마사지를

평균기온이 오르면서 어느새 한 학기가 끝나가고 곧 시험기간이 다가온다. 고경선 (22, 대학생)씨는 다가오는 방학에 대한 들뜬 마음과 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어서 생각만큼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머리가 복잡해지다보면 집중은 흐트러지고 잡념만 동동 떠다닌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지압을 해주면 거의 흐름을 재조정할 수 있다. 마사지를 샅에 가지 않고도 책상 앞에서 혼자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마사지법을 알아보자.

대정뷰티아카데미의 김효선 부원장은 "우리 몸에는 자생력이 있다"며 "사람들은 아픔이 치유되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주사와 약으로 호전되기를 기대하지 않고 마사지로도 치유가 가능할 때가 있다. 마사지는 머리끝과 발 끝 등 혈에 자극을 주어 자가치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먼저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다섯 손가락을 머리카락 속에 집어 넣는다. 그 후 손가락을 구부려 머리카락을 쥐었다 편다. 이러한 자극은 두피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두발을 일자로 놓고 서서 오른발을 들어 발뒤꿈치로 왼쪽 발가락을 자

근자근 눌러준다. 또 그 상태로 허리를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스트레칭 효과가 배가 된다.

▲ 두통을 느낄 때는 두 손바닥을 옆머리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맞추고 원을 그리며 눌러준다. 또한 머리 윗부분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간에서 머리를 지나 목으로 가는 선과, 오른쪽 귀와 왼쪽 귀를 잇는 선이 겹치는 부분을 짝짝 누르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이 외에도 머리 아랫부분을 자극하는 것도 두통을 완화시킨다. 목뼈를 중심으로 머리 뒤편 두개골 바로 아랫부분 양쪽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눌러준다. 뿐만 아니라 엄지와 검지 사이 삼각형을 이루는 살 부위를 압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대편 손 엄지와 검지로 이 부위를 꼭 짜듯이 10~20초 동안 두통이 완화될 때까지 눌러준다.

▲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호랑이 발톱처럼 양 손을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머리를 감싸며 두드린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가슴이 딱 하고 딱혀 답답함을 호소할 때는 손목을 꺾어 명치부분을 두들겨 돌려가며 누른다.

▲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에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다. 졸음이 마구 몰려온다면 이 때는 양 손가락을 꼭 쥐고 뒤 약지와 새끼 손가락 사이 삼각형을 이루는 살 부분을 눌러주면 된다. 또한 다른 손가락 사이를 이

처럼 지압해도 효과가 크다. 또 발뒤꿈치 자극법도 있다. 이 방법은 두 발을 똑바로 놓고 서서 한쪽 발을 들어 세워 뒤꿈치를 바닥을 향해 몇 차례 내리친다.

▲ 오랜시간 책상에 앉아있다 보면 목과 어깨에 긴장이 쌓이기 마련이다. 이 때는 양 팔을 뒤로 뻗어 깎지를 꺾 머리를 숙이지 않고 앞으로 허리를 숙이면 어깨의 근육을 자극해서 어깨의 피로가 풀린다. 또 온 몸에 힘을 풀고 양손으로 수건 양 끝을 잡고 돌리면서 말린 어깨도 펴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양쪽 반대편 손을 이용해 머리를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최대한 눌러주는 것도 목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좋다.

▲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마사지로써 왼손 엄지로 오른손 집게 손가락의 첫째 관절에 있는 반사점을 누르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해주면 눈의 피로가 풀린다. 또 왼손 엄지를 사용하여 오른 엄지 끝 부분을 누르면서 마사지는 것은 뇌혈중에 도움이 된다.

김효선 부원장은 "사람들이 답답하면 가슴을 치는 일이 많다. 혈액순환이 막혀서 그렇다"며 "이럴 때 마사지를 해주면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주는 몸의 독소를 내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도 간단한 마사지를 통해 스트레스에 지친 심신을 달래 보는 건 어떨까? 이번 기말고사 공부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 간단히 따라해 본다면 몸이 한층 더 개운해질 것이다.

이혜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영화 읽어주는 여자

격렬한 고민에 휩싸인 한 남자 로댕 '생각하는 사람'



"나체의 남자가 바위 위에 앉아 발을 모으고 주먹을 턱에 댄 채 풍상에 잠긴다. 풍부한 영감이 그의 뇌에서 피어올라 천천히 형태를 만든다. 그는 더 이상 몽상가가 아니라 창조자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의 조각 작품 중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일 것이다. 이 작품은 원래 1880년 로댕이 당시 파리에 세워질 장식미술관의 문을 장식할 조각을 의뢰받아 제작한 <지옥의 문> 중앙 맨 윗부분에 조각된 것이다. 로댕은 처음 <지옥의 문>을 구상하면서 작품에 들어 갈 부분 작품들을 한 작품, 한 작품씩 제작해 나갔다. 이 작품도 그 작품들 중 일부이다. <지옥의 문>은 결국 미완성인 채 남겨졌으나, 그 중 로댕의 역작 두 편이 들어있는데, 그 두 개가 바로 <생각하는 사람>과 <입맞춤>이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 중앙 맨 위에 위치한 인물로 지옥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기 전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긴장감있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지옥의 문>의 모티브가 된 단테의 <신곡>의 저자인 단테가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그 눈에 찬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창조자'에 비유되는 '조각가'인 로댕 스스로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한 서늘하고 체념에 찬 인간의 고독과 집중적인 정열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로댕의 작품은 육체

조주현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담벼락에 그려지는 알록달록 이야기



▲ 장원중학교 학생 및 자원봉사자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골목길 담벼락에 향긋한 미술의 온기가 사뭇히 내려앉았다. 학교담벼락과 골목길 벽이 아와화랑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우리학교 근처에 있는 '요거프레소' 카페 앞 담벼락에도 우리학교 동아리 '유채꽃'에서 그린 오즈의 마법사의 친구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낙산공원 가는 길목에서도 알록달록한 담벼락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공미술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2006년

부터 시행한 낙산프로젝트로, 70여명의 작가들이 벽화와 설치미술에 참여했던 흔적이다. 또 조금만 더 가면 동대문 문화시장 곳곳에 그려진 리플부자재를 형상화해 만든 작품이 자리잡고 있다.

어떤 동네는 타지에서 내려온 화가들이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와 그림을 그렸고, 또 다른 동네는 주민들이 서투른 손으로 붓을 들이 벽에 색깔을 입히기도 했다. 주민들과 함

께 그림을 그린다든 중구정에서는 현재 공공 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 사업을 진행중이다. 중구정 문화체육과 박미영씨는 "중구는 상업지구와 주택가이므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골목길 사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예술작품을 보면서 정서가 안정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순수 참여한 벽화 벽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줄어들고, 탁한 회색 벽만 보다가 담쟁이덩굴이 그려진 작품을 보니 주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중구정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가와 학교, 학생,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골목길담장과 계단에 꽃과 동물 등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벽화와 조형물을 만들며 내손으로 직접 '우리동네'를 꾸미는 것이다.

벽화 작업에 스케치와 디자인은 승의여대, 동국대 등 중구에 소속된 학교의 미대학생들이 참여하거나 전문가들에 의해 그려진다. 그 이후의 채색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이 대부분이다. 지난 5월 21일, 광희초등학교의 담벼락은 고사리손으로 가득채운 작은 타일들이 모여 벽화가 되었다. 박미영씨는 "단순 벽화가 아니라 길거리에 예술작품을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볼 수 있으니 골목길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작년부터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승의여대 강빛나(아름미술과) 조교는 "교수님과 학생들과 자원봉사로 참여했다"며 "당시는 생각했던 것 보다 벽이 높고 울퉁불퉁해 어려웠지만 화사해진 골목길로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고 전했다.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회색빛의 담벼락에는 활짝 핀 민들레가, 계단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이 피어있지 않을까?

이혜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김동규 기자의



카프카의 '변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무너진 인간의 존엄성'



체코의 문호인 카프카는 프라하에서 1883년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대인의 삶,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삶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불안한 의식과 구원의 꿈 등을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단순

한 언어로 형상화했다. 거칠고 위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그는 평생을 걸쳐 완성한 작품 속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억압에 대한 해방의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 '변신'은 카프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범한 세 일드맨인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신하여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레고르는 상점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벌레로 변신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집 밖에서는 상점의 지배인이 달려와 그레고르의 출근을 독촉하고, 여동생과 어머니 또한 그의 잠긴 방문 앞에서 그의 출근을 요구한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들지 못한다. 그리고 곧 그의 잠긴 방문이 열렸을 때 가족들과 지배인은 벌레로 변한 그를 보며 놀라게 되고 그를 독충으로 간주한다.

이 소설에서 변신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집

단에서조차 자기 존재를 정립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가족 내에서 그의 존재는 돈을 벌어서 주는 역할에 한정되며 그는 오히려 벌레로 변신한 이후, 인간으로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하고 벌레로서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변신 이전에 가졌던 인간으로서의 애정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을 위한 자신의 희생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의 변신 이후 가족들은 각자의 생활을 회생하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지만 그레고르를 향한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된다. 생계를 이어주던 본줄이었던 그의 가치 하락은 그를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처음에는 그를 위해 걱정하며 그를 아끼던 여동생은 그를 도와주지만 이내 약자를 동정하며 느끼는 자기 만족과 자신만이 그레고르를 보살필 수 있다

는 자만심에 빠져 버린다. 그리고 결국에는 벌레를 그레고르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게 마지막 회생을 요구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 소설은 자신의 소속 집단에서조차 존재를 확인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흔히들 얘기하는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이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인정된다는 현대사회의 냉정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레고르가 왜 벌레로 변신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결코 슬픈 인간인 채 사실상 벌레처럼 아무런 희망과 기대도 갖지 않고 폭력과 외면으로 일관했던 가족, 그에 비해 비록 겉모습은 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을 지라도 내면에서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던 그레고르, 과연 누가 인간다운가에 대한 의문은 이 소설들을 읽는 사람들이 내내 느꼈던 씁쓸한 감정이었겠다.

김동규 기자 donggyu@hansung.ac.kr



사진이야기



작년 5월, 치악산에 올라가며 찍었던 계곡입니다. 에메랄드같이 빛나던 물과 작지만 예쁜 폭포 그리고 푸르른 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강민정 (경영 3)

코미디언 최초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열정으로 가득한 '작은 거인' 김미화를 만나다



김미화는 누구인가?

- 1983년 MBC라디오 개그맨 컨테스트로 방송계 데뷔
- 199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카드후견인
- 2002년 백상예술대상 코미디언 연기상
- 2001년~2005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 2007년~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 2009년~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2009년~ 단일공동체 홍보대사

인터뷰를 힘들게 잡았습니다^^ 요즘 주로 어떤 일을 하며 보내십니까?

하하(웃음)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지금 3학년이에요.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를 8년째(2003년 가을부터) 진행해오고 계십니다.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로 불리기도 하고, 또 '촌철살인'의 진행으로 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따뜻한 뉴스를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코미디언이니까 뉴스도 친근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가 어렵고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참 보람있구나. 어렵지만 시사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진행하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요즘 트위터를 즐겨하시고 계시는데, 트위터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트위터를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박경림씨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서 '언니도 한 번 해보라'고 해서 박경림씨의 추천에 트위터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분쟁지역에 다니시는 이진숙 기자를 좋아하거든요. 그 분에게 트위터에 관해 얘기를 했더니 김미화라는 이름은 벌써 등록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화' 자를 원래는 'wha'인데 'wa'로 해서 등록을 해주셨어요. 두 여성을 통해 처음으로 트위터에 하게 되었고 트위터를 하면서 지금 저의 '팔로우(follow)'들이 거의 2만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분들(follow)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있는 디지털 유목민들인데도, 아날로그적인 것을 원한다는 점이예요. 그 분들이 그 안(트위터)에서 반개를 하거나 모임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해서 두 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또 트위터 안에서 제가 '웃기는 얘기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 분들이 꼭 보내줘요. 웃기는 얘기를 보내주신 몇 분들을 만나서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눈 적 있어요. 그 분들이 제 라디오를 듣다가 '목소리가 감기 걸리 셴네요'하고 걱정하면서 감기에 좋다는 차들을 보내준 적도 있고요.



▲ MBC 방송국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김미화씨가 진행, 출연(목소리 출연 포함)했던 프로그램에 김미화씨의 출연이 부적절하다, 좌편향 됐다든 일부 보수?정부 인사들의 얘기가 있었습니까. 의도치 않게 논란의 중심에 놓이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 나가셨습니까?

저 스스로는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아요.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당당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표현하고 싶은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국가에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대로 표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내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오해들이나 편견들은 풀려요. 그들

에게 항변은 소용없기 때문에 그냥 오해가 풀리도록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뭐랄까, 내 양심을 믿는거죠. 그러니까 뭐든 일에 대해서 자기 양심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한 사실은 내 뇌는 기억하고 있고, 내 양심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사실 도둑질 안했는데 했다고 소문이 나면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데 내 양심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27년 동안 좋은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또 시사프로그램을 하는 7년동안 그 안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이니깐 다 신경 쓰지는 않아요.

다양한 홍보대사로 일하셨는데(호주제제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홍보대사 등) 홍보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홍보대사 활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홍보대사는 제가 지금 거의 80군데의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홍보대사를 결정하는 데 특별히 결정하는 기준은 없어요. 우리 나라 NGO 단체들은 부자인 것 같아도 가난한 데다 많아서 홍보대사 요청이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요. '어떻게 80군데나 되는 곳을 다 하느냐' 하지만 각 행사들이 사안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만 조금 부지런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홍보대사를 많이 하다 보니 내가 그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대표가 아니고 그 단체에서 '이런에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까'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알려주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호주제제지에 대해 홍보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호주제 제로 인해 '내가 어렸을 때 고통 받아 오면서 살아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언론에 집중 보도 되어 나오면서 우리집에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단체에 대해 내가 대표성을 띠는 점에서 해당 단체를 홍보대사 할 때 조금은 조심스러워졌어요.

방송 일 외에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만약 내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도 할 수 없었겠죠. PD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PD들이) 저의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에게 프로그램을 맡기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내 직장에서 인정해주는 상사와 동료가 최고인지 밖의 사람들이 나를 모르면서 떠드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내 인생에 어떤 성취감으로 따지면 '나는 120% 성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즐겁고, 모든 일에 감사해요.

코미디언과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사회, 세상을 바라보는 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정치라든지 사회, 경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면 왜 일어나게 되었고 또 어떤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요. 하지만 지금도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이 느껴요. 딱딱하고 어려운 것을 계속 다루니까 힘들기도 하구요. 가끔은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텐데요, 김미화씨의 멘토가 되는 이는 누구인가? 혹은 어떤 모습을 한 사람인가?

사람마다 다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멘토가 단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특별하게 나의 멘토를 정해 놓은 분은 없어요. 방송국 청소 아주머니들에게서는 성실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분들은 더러운 것들을 손수 만지면서 쓰레기통을 다 청소해 주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회 저 너는 곳을 도울 때 진심을 가지고 나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만나 보았고, 외국에 있는 성공하신 분도 만나 보았어요. 그분들에게서는 근면성실한 점을 배울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열사람을 만났으면 열분의 멘토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수 홍서범씨하고 친한데(저의 남편 친구이기도 해요. 하하) 홍서범씨는 사람의 좋은 점만 봐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남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하죠. '아! 그래서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라고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해서 칭찬의 멘토로 홍서범씨를 정했어요 하하(웃음).

김미화씨가 바라는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민주주의가 꽃 피는 사회. 그래서 정말 함께 어떤 문제든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좀 답답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하고 거기에 토론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가는 사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줄 알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먼저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다보니깐 일부러 공부에만 더 매달리고 취직하기를 겁내하고 밖으로 나오기를 무서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겁나기도 하죠. 그러나 젊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젊기 때문에 부딪혀 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폭포에서 흐르는 물은 거칠없이 달려오면서 떨어진다. 폭포에서 흐르는 물처럼 달려가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고 말했어요. 그런 용기는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나이가 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생각하게 돼요. 과연 '내가 이 나이때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 설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이에요. 이런 걱정은 노인이 돼서 하면 되는 거고, 젊은 시절에는 뭐든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딪쳐 보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계속 부딪쳐 오면서 살아왔어! 오늘날의 내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항의 달 6월, 잊혀진 항쟁 기억해야할 것들

“대학생, 사회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이 단어들에 이제 우리에게 많이 낯설어진 구호다. 하지만 23년 전 6월, 이 구호들은 서울시청 거리와 명동성당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를 뒤덮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87년 6월의 민주 항쟁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있게 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6월 민주 항쟁은 우리 현대사의 많은 민주화 항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송동현(기회홍보실)과장은 “민약 학생들의 저항 또는 일부 지역만의 저항이었다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함께 치열한 패배로 끝났겠지만, 87년 민주 항쟁은 사회운동 단체와 학생들이 서로 연대하고 야당이 함께 참여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19는 학생

과 야당의 시위대가 국민과 함께한 사건이고, 5·18은 대학생들의 시위가 계엄군에게 짓밟혔다”며 “6월 항쟁은 1980년 광주 이후 만들어진 각 부문, 지역별 운동단체들과 종교단체가 당시 야당인 신민당과 함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전체 상황을 주도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20여년 후, 2008년에는 촛불 시위가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은 다시 주요 화두가 되었다. 송동현 과장은 “촛불 시위 때 시민들은 6월 민주 항쟁 이후, 신장되어온 시민들의 권리가 다소 후퇴할 수 있다는 염려로 거리로 나온 것이다”라고 촛불 시위를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87년에는 대학생들이 사회변화의 주도세력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에 반해, 지금의 대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자신의 이해에

너무 구속받는 것 같다”며 현재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대사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에는 학생과 시민의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6월 민주 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6월 민주 항쟁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은 항쟁의 일선에 있던 학생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학생을 지지해주었던 ‘어머니’에게도 있다. ‘독재타도!’, ‘민주쟁취!’와 함께 울려 퍼졌던 슬로건 중에는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을 살려내라!”라는 것도 있었다.

민주화추진가족협의회의 임기란(상임의장)씨는 민주 항쟁 당시 56세의 나이로 다른 부모들과 함께 투쟁에 나섰다. 임씨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할 때는 쌀이며 반찬을 학생들에게 가져다주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분신자살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했을 때는 정말 괴로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임기란씨는 이어 “엄마들이 문쳐서 독재정권의 폭력성을 알리려고 노력했다”며 “버스에서 ‘배라’ (전단지)를 배포하고, 구치소 앞에서 목숨 걸고 시위를 했다”고 전

했다.

우리는 6월 민주 항쟁 주도세력이 대학생과 시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추진가족협의회와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시위 때 어머니들이 학생들을 위해 어떤 헌신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

임기란씨는 끝에 “6월 민주 항쟁의 성공은 모두 대학생들이 이룩한 것이다”라며 “(지금의 대학생들이) 선배의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현재 대학생들이 6월 민주 항쟁을 기억하기를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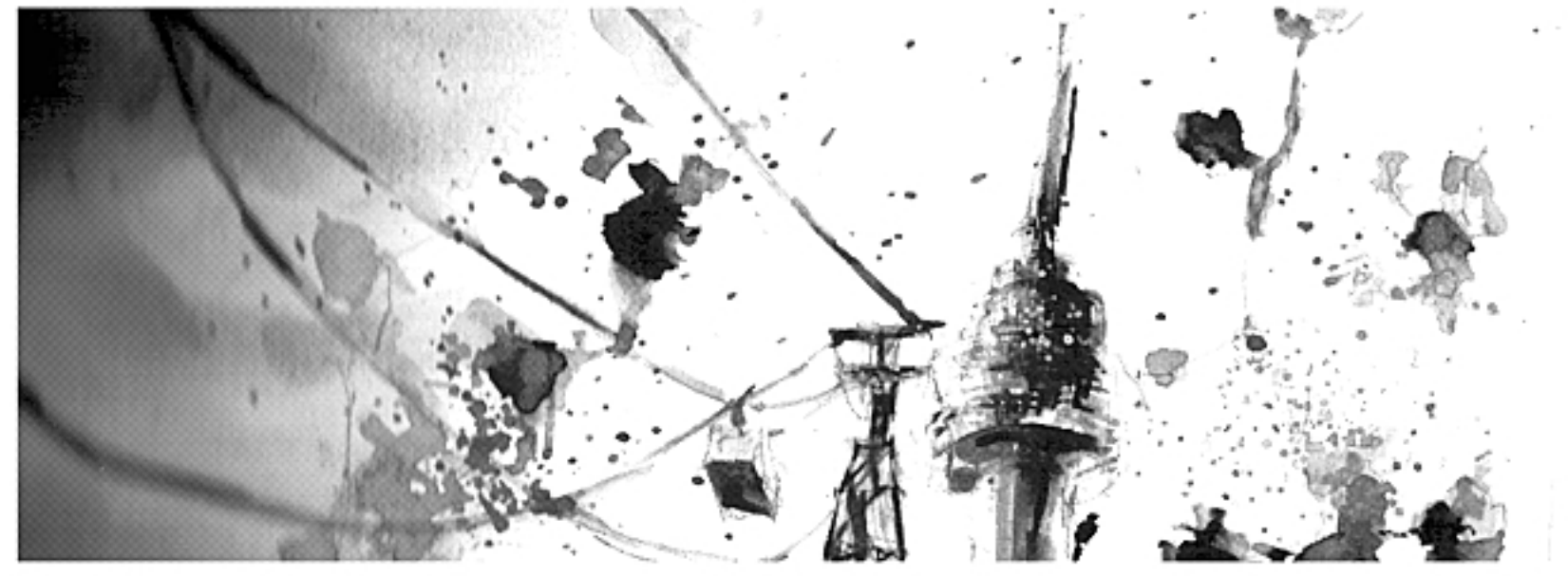
윤민혁 기자 dajai@hansung.ac.kr



김인경 작가

도설연재

그곳에 그는 없었다 (5)



점점 짙어지는 안개 속을. 그때 차가 한 쪽으로 기우는 것 같더니, 급커브 길이 나왔어요. 전, 그가 잡고 있는 핸들을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꺾었지요. 차가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빗길에서 사정없이 미끄러졌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눈앞이 환해지면서 불꽃이 사방에서 튀더군요. 그때 형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머리에서는 선홍빛 피가 흘러 내리 시작했어요. 왼쪽 뺨을 지나 오른쪽 눈으로 스며드는 피..... 그건 다시 눈물처럼 흘러내리더군요. 그가, 그가.....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볐어요. 점점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피 묻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는 절박으로 밀어내더군요. 형진 씨..... 형진 씨..... 전 소리를 질러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어딘가로 잠겨질 뿐 들리질 않았어요. 전 더욱 크게 그를 불렀어요. 더욱 크게.형, 형진 씨, 형....., 형진 씨..... 어디있어요, 제발, 제발..... 하지만 형진 씨는 더 이상....., 더 이상....., 그래요, 그날 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핸들을 꺾은 거예요. 그제야 더 이상 공금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우린 함께 하고 싶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현수는 그녀의 말을 어디부터 정리해 들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 죽은 사람인 박형진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녀에게 해야 하는 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녀는 이미 박형진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자신이 핸들을 꺾었다는 말을 너무나도 담담히 하고 있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럼, 형진 씨가 일부러 차의 핸들을.....?”

현수는 주위를 둘러보려하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만약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면, 입술을 딱딱여 말을 하지 않았다면, 현수는 그녀를 진짜 석고상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형진 씨 형이 당신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단지, 기억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곳에....., 그곳에 그는 처음부터 없었니까요.”

“예? 그게, 박형진 씨가 그곳에, 그곳에 없었단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혼자 살아있는 지금, 그가 그곳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는 살아있을 거라고..... 그 어딘가요.”

그녀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박형진이 그곳에 없었단니, 분명 그는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있지 않았던가.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커피숍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창 너머로 늦게 솟은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형체를 드러냈다. 안개가 잔뜩 낀 풍경이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안개가 잔뜩 낀 날....., 오늘처럼요. 사람들은 왜 케이블카를 타지 않는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짙어지는 안개 속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날에 케이블카를 탈지도 몰라요. 너무나 짙은 안개 속에 있다면, 위에는 얽은 안개가 있어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거든요. 지금보다는 낫겠지, 이 뿌연 안개 속보다는 좀더 낫겠지 하는 기대가요. 아마, 형진

씨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안개 속 같았나봐요. 점점 불어오는 빛에 어느 누구에게도 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괴로움에 숨이 막혔겠죠. 그는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어요. 빛을 갈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방법 밖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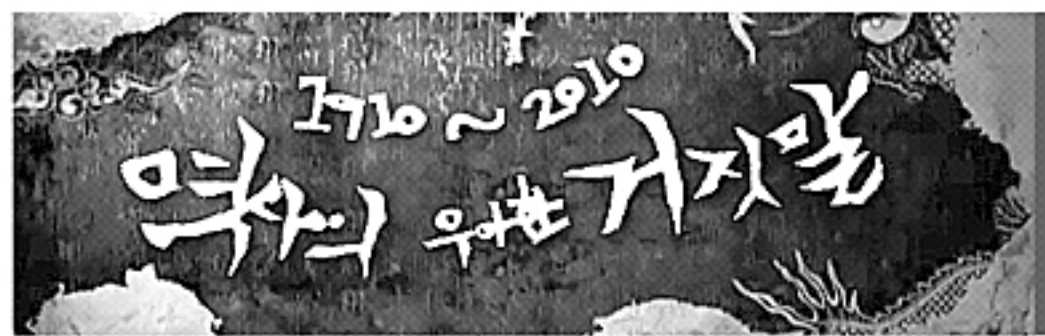
“그.....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현수는 그녀의 얘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훑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여전히 창백한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속눈썹에는 점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다. 눈을 깜빡이면 떨어질 것 같은 물방울들이 고통스럽게 그녀의 눈가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박형진이 죽은 것을 알고 있다면, 현수는 박형진의 역할도, 이 자리에 있어 있을 이유도 없었다. 곧 사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수에게 돈을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현수는 와이셔츠의 첫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겼다. 그녀의 시선은 한동안 현수의 얼굴에 머물렀다. 아무런 표정이 없던 얼굴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형진 씨 형님께는 제가 잘 말씀을 드려요. 아마, 형님은 형진 씨의 보험금에 욕심이 생겼나봐요. 누가 봐도 그런 사고였으니까. 그날처럼 안개 잔뜩 낀 날은 늘 사고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녀는 흰 봉투를 내밀었다. 어떤 것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그녀의 모습이었다. 현수는 한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흰 봉투를 집요하게 응시했다. 테이블 밑으로 마주잡은 손은 언제 그 봉투로 손을 내밀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현수는 어떻게 호텔 커피숍을 빠져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커피숍 창가에 어떤 움직임도 없이 앉아 있었고, 이내 그녀의 모습이 유리창 물결기를 따라 흘러 내려 시야에서 사라진 것만이 기억될 뿐이다. 그리고 정신없이 아무 버스나 목적도 없이 올라탔다. 버스는 빗길을 달려 남산으로 향하는 도로를 기세 좋게 질주해 갔다. 이제 버스는 달리지만 하던 되었다. 그곳이 어디든지 버스는 그냥 달리지만 하던 되는 것이다. 사방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대로 한없이 위로 올라가면 앞이 보일 것만 같았다.



⑤ 간도 지역분쟁

‘동위토문 서위압록은 어디인가?’

백용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사무국장

간도지방은 고구려와 고구려를 이은 대진국(발해)의 영역이었으나 대진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간도 지역을 그들 조상의 발상지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이주를 금하였으나 조선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 조선 속종 때 청은 조선과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 하였다. 그 후 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그지역으로 넘어가 살았으며, 청은 조선의 사람들을 쫓아내려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나 조선에서는 간도관리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백성들을 보호 하였다.

그러나 청은 터무니 없이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는 주장을 하여 조선 조정을 압박을 하였으며, 결국 을사늑약으로 간도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인동(단둥)에서 봉천(선양)간에 철도를 놓는

대가로 간도가 청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간도협약(1909년)을 체결하므로 인하여 간도 지역은 대한제국의 관할권을 떠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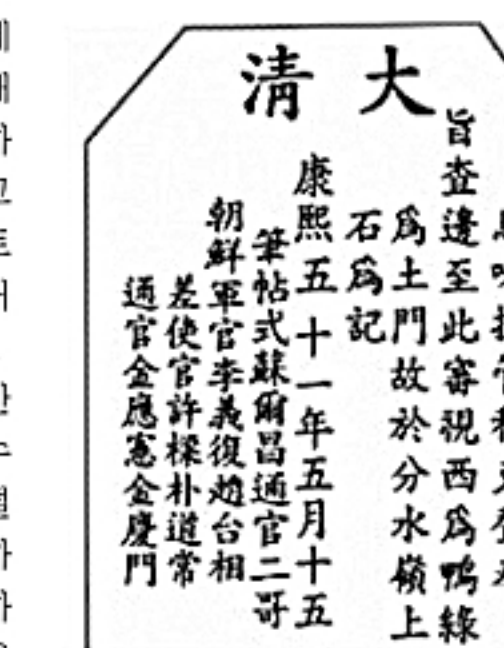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시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는 우리의 국토를 이렇게 이야기 한다. ‘동위토문 서위압록’ (1712년 숙종 38년) 이말은 곧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는 말이다. 압록강은 우리가 잘 아는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강을 압록강이라 부른다.

그런데 토문강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중국의 주장은 토문강은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의 우리의 강역은 한반도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이런상태로 계속해서 영토에 관한 문제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간도 지방은 왜 우리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천지 풍남쪽의 분수령은 토문강의 강원(江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토문강의 흐름도 일정하지 않았다. 청나라측은 국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토포·석퇴를 쌓을 것을 조선측에 주문했다.

바로 이 토포·석퇴가 이어져 있던 강이 바로 토문강이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의 국경회담 결과와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의 우리의 강역은 한반도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조선금석총람의 정계비기록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가 작성한 지도 역시 오도백하를 ‘토문강’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토인 간도지역을 되찾아야 하겠다. 두만강이 토문강이 아닌만큼 우리의 영역인 간도지역은 국제법상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대학생 창업지원단 사업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010년 4월 28일(수)에 개최된 창업지원단 발대식에 이어 아래와 같이 대학생 창업지원단 사업을 안내하오니 대학(원)생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대학생 창업지원단 사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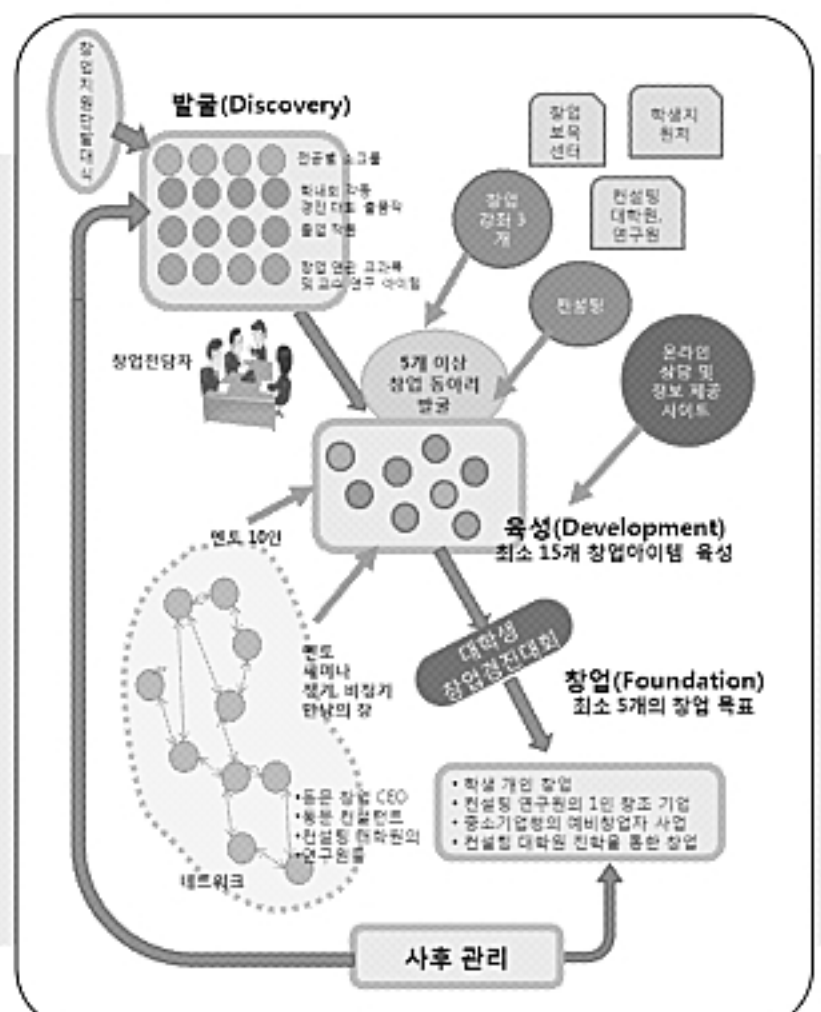
대학 내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준비된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등 대학생 창업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상담시간 및 신청 방법
가. 상담시간 : 09:00 ~ 17:00(취업지원팀(우촌관 3층) 또는 우촌관 613호)
나. 상담방법

2. 대학생들의 창업 관련 상담 안내

- 목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및 창업컨설팅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 확충
- 창업전담관의 역할
가.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 관련 상담
나.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다. 창업경진대회 운영
라. 창업경진대회 개최
마. 기타 창업분위기 조성사업

3. 창업지원단 사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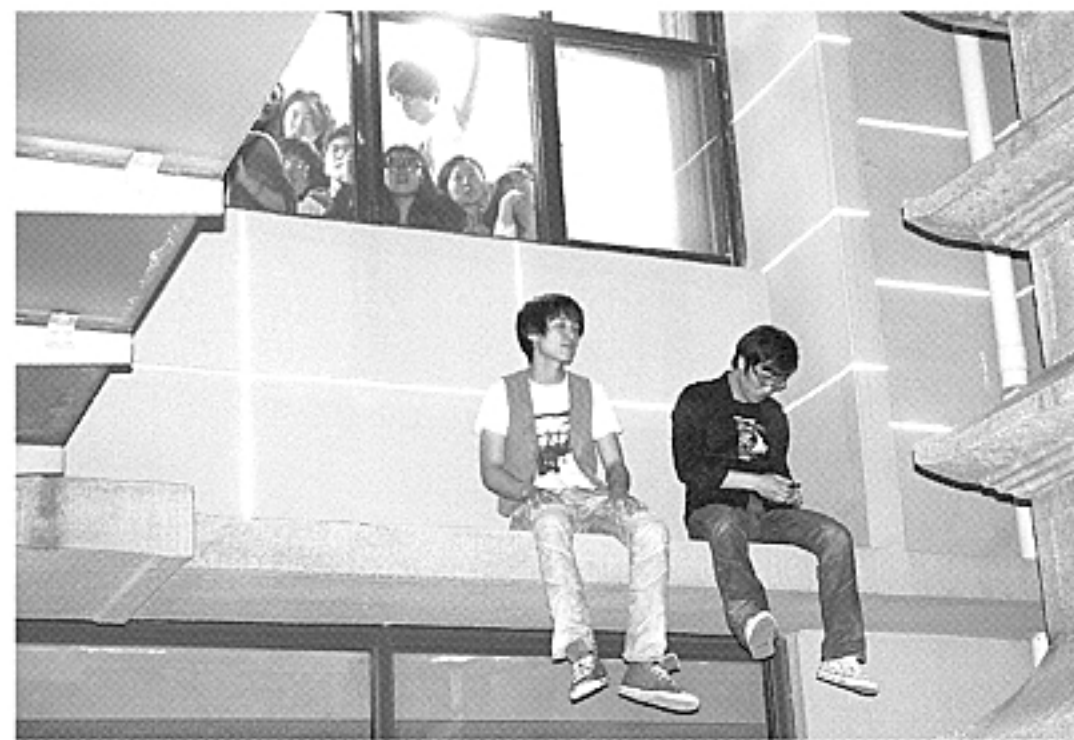
5월, 대동제 이모저모

한성인을 하나로 묶어준 2010 대동제

우진사 앞 부스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 에어바운스, 가수공연에 안전문제 우려돼

올해 대동제는 학생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돼 많은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동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무대행사였다. 무대행사는 19일, 20일 각각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한성커피홀개장전, 슈퍼스타H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그리고 초청가수 공연 전까지 들뜬 TRIAX, 왕산악, NOD 등 우리 학교 동아리 와 국민대 응원단, 건국대 댄스동아리 'wanna family' 등 대동제 동아리가 무대를 채웠다. 장호철(경영 4) 총학생회장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기획단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타 대학 응원단, 각종 댄스팀을 섭외했다"고 말했다. 초청 가수 공연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다. 이번 대동제에는 19일에 에어바운스, 20일에 타이거 JK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기획단 측에서는 "매년 많은 학생들이 초청 가수 공연을 기대해 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연예인을 초청하기 위해 들인 비용에 비하면 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걸그룹이 대체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전했다. 19일 공연을 관람한 서길원(역사문화 1)학생은 "격조적인 초대가수 공연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려하게 치러진 무대행사에 비해 잔디광장의 다른 행사 및 부스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걷기 힘든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 동아리와 바자회, 홍보대사, 먹거리 장터를 배치했기 때문이다. 동아리의 한 학생은 "동아리를 모두 우진사로 빼서 사람들이 참여가 저조해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매나니로의 한 회원 역시 "예전엔 우촌관 중문 앞에 부스를 설치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들렀는데 이번엔 발길이 뜸하다. 무대와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이쪽까지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동아리와 바자회 등 행사 부스들을 한 자리에 모아 밀집효과를 노렸는데 무대 행사에 집중하느라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다. 원래는 정문에서 우진사를 통해 운동장으로 유도하는 통로를 짰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날 비가 많이 내려 예정된 에어바운스가 마지막 날로 연기되었다. 손도장 벽화는 한 학생이 물감을 얹어 손바닥으로 로고를 만들어 전시하려던 계획과 달라졌다. 그 외에 무알뜰데이,



▲ 지난 5월 20일 타이거 JK의 공연을 보기 위해 잔디관 건물에 올라앉은 학생들.

그래피티, 페퍼부스기, 3on3 농구대회 등은 별다른 이슈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소원 풍선은 축제 전 신민철(행정 4)학생이 환경 보호 측면에서 반대편사를 제기함에 따라 공중에 날리려던 계획 대신 미래관 앞에 묶어 전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대동제에 처음으로 시도된 에어바운스는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에어바운스는 오전에 주점이 열리지 않아 한산한 운동장에 놀이공원의 느낌을 주기 위해 설치되는데 학생 대신 아이들이 몰렸다. 이에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처음부터 에어바운스의 목표는 어린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동제가 되었고 작년보다 민원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들이 주로 이용한 에어바운스의 안전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 학생은 "11미터 높이의 슬라 이딩인데 보호대 등 안전장비가 전무해 안전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초대 가수의 공연을 보러온 학생들이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많은 학생들이 공연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잔디관 창문 난간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축제에 초청 가수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것 등은 변화되어야 할 대동제 문화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축제인 만큼 기성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예정된 동아리 행사, 진행 안 돼

우천, 지원금 문제, 학생참여 저조 등

이번 대동제는 예년에 비해 동아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비가 내려 다소 적은 인원의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한음(클래식 기타 연주 동아리), 탈(사물놀이), Triax(흑인음악류 공연)은 짧은 파기와 열정적인 공연으로 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우촌관 앞 잔디밭에는 동아리의 행사와 나눔바자회, 먹거리, 음주캠페인 등 다양한 주제의 부스들이 들어섰다. 매나니로에서는 그림이 그려진 교통카드와 일러스트를 전시했고, 에드매나니에서는 오징어와 라테일을 판매,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붙였다. 에드매나니의 강세진 학생은 "동아리에 관한 포스터 전시로 축제를 통해 동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낙산극회에서는 석고상으로 분장해 마임을 선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즐기는 축제이지만 예정되어있던 행사가 진행되지 않은 동아리도 있었다. 행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 야구부 동아리화장 전대 민경영 2학생은 "첫 날 행사로 예정되어있던 구수축정과 포수장비 착용 기념촬영은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었다"며 "물 짙은 장소가 협소하고 공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탓에 포수장비 기념촬영을 각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독교 동아리 MF 회장 이나영(행정 3)학생은 "매년 대동제 때 공경

무역 행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대동제에서 지원금을 책정하는 투표에서 공연 팀 위주로 표가 몰리는 바람에 지원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신 2학년 때는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HVIC(가치투자동아리)에서는 마술쇼와 길거리 게임을 3일 동안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단 하루만 마술쇼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가치투자 동아리 회장 양승재(경제 4)학생은 "길거리게임을 진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해 게임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동아리 행사는 진행에 문제가 있었지만 무대와 행사장소의 거리가 멀어 불만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운동장 무대와 동아리 행사 장소 너무 멀어

성수원(기계 3)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학교 전체 공간을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에서 운동장에 각 과 주점과 중앙무대가 설치되어 관심이 집중되었다"며 "무대와 동아리의 자리선정적인 부분에서 무대와 우촌관 사이의 유동인구가 적어 동아리들의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리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액수는 전학기 활동에 근거해 동아리연합회와 학생지원팀 그리고 교수님들의 평가로 등급별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대동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위해 매학기마다 동아리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예진기자 odory11@hansung.ac.kr

알코올은 빼고, 실속은 더하고

변화의 발걸음을 보이는 대학 축제

대학의 축제가 변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축제를 주점과 유흥으로 채웠던 것에 비해 최근 열렸던 대구대와 한양대의 행사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중요 관심사인 취업에 관련한 페스티벌을 열었다. 또 단순히 학내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기도 했다. 한양대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의 진행요원은 "사회의 주체인 대학생들이 좀 더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갖기 바라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들렸다. 장애인 체험 활동에 참여한 오태현(환경건설공학 1)학생은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다.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면



▲ 한양대에서 열린 자선 클럽 LOUNGE H. 많은 학생들이 춤을 추고 있다.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대구대 하석수(일반사회교육 4) 총학생회장은 "취업문제가 연애,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 3대 고민에 속한다"며 "학교 주관으로 취업적성 찾자 행사 벌이고 총학 주관으로는 취업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동제는 주점과 가수 초청이 아닌 학생이 주체인 학습행사 중심의 축제로 기획했다. 좋아하는 학생과 불만이 있는 학생이 반반인 것 같다"며 대동제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어 "하지만 취업 캠프의 내용 자체가 무

겁고 통행이 많지 않은 체육관에서 진행되어서 생각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양대에서는 또 클럽을 만들어 수익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클럽에 참여했던 장우빈(명지대 1)학생은 "클럽 수익을 모두 소외계층을 돕는데 쓴다고 해서 참여했다. 단순히 수익 추구를 위한 행사였다면 굳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며 단순히 주점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던 것에 그치던 축제의 수익 사업이 소외계층을 돕는 것으로 변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신인생이라 이번 대동제가 첫 축제인데 그동안 축제 때 술밖에 안 먹는다"고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윤민희 기자 dajai@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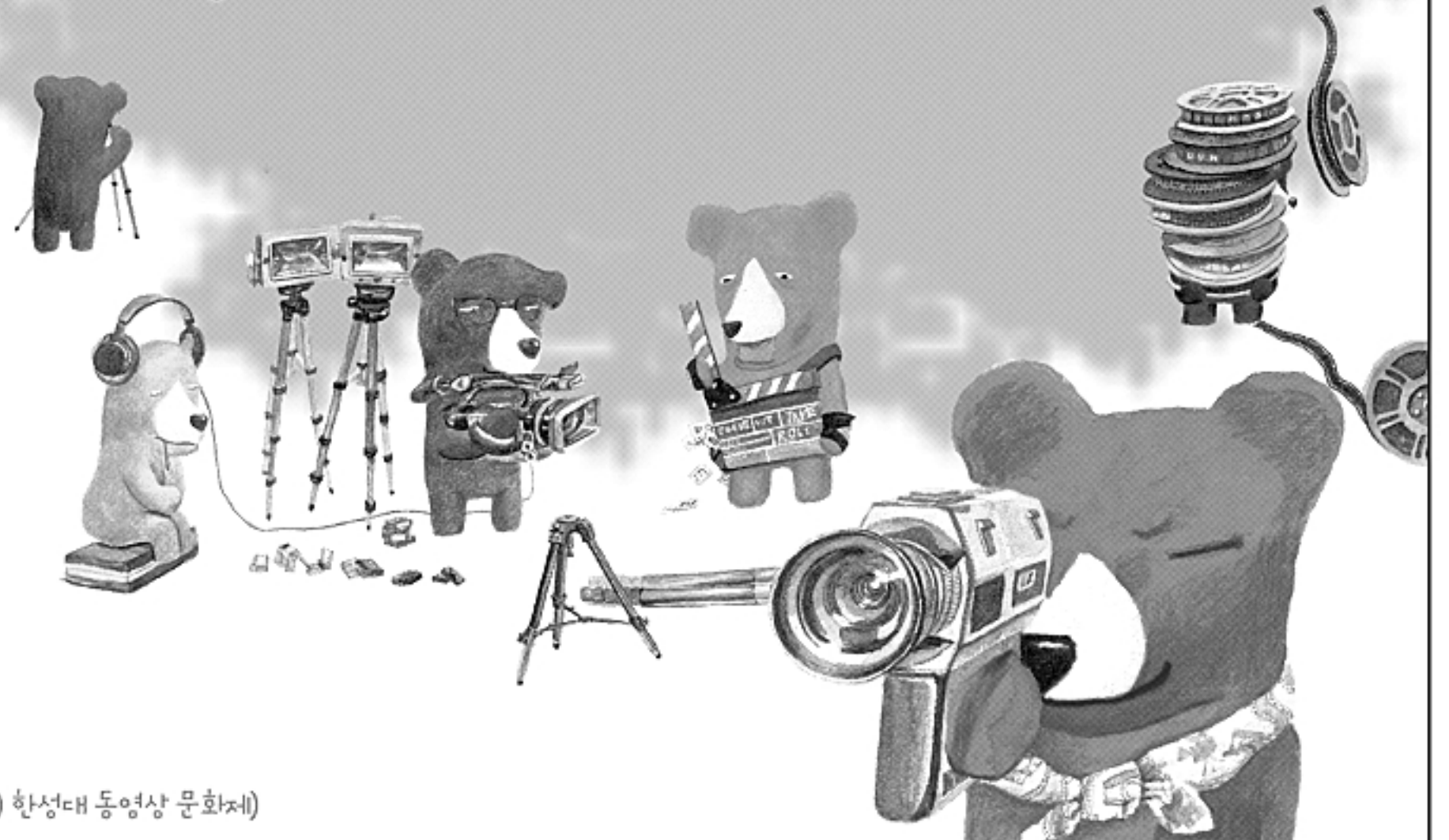
▲ 동아리 '매나니로'에서 그림이 그려진 교통카드와 일러스트를 전시하고 있다.

세상이 있다! 꿈이 있다!

제 3회 한성대 영상제 (구. 한성대 동영상문화제)

일시 : 2010년 11월 20일 토요일 15:00
장소 : 미래관 지하 D.L.C
주최 :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주제 : 자유공모
대상 : 한성대 재(휴)학생

작품형식 :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UCC 등
런닝타임 : 10분 내외
출품포맷 : DVD 혹은 avi, mpeg, wmv 등의 파일
출품장소 : 우촌관 509호 교양학부 사무실(02-760-4446)
출품마감 : 2010년 11월 5일 금요일 17:00시까지
*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집니다.
재능있는 한성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교양학부 우509/760-4446



((구) 한성대 동영상 문화제)

강



▲ 명당 성당 앞 단식기도를 하고 있는 진우섭 신부의 모습이다.

진우섭 신부 인터뷰

4대강 공사현장에 꼭 가보아라

"4대강 공사 현장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나서게 된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진우섭 신부의 말이다. 5월 28일 만난 그는 명당 성당 앞에서 6일째 단식기도를 하며, 정부의 4대강 정책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진우섭 신부는 "현 정부는 소통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권은 하고자 하는 일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껏 일어난 광주병사태, 촛불시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체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백색 독재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은 인간과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다. 지난 5천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는 강의 혜택을 받아 지금의 문명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MB정권은 일자리를 창출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 평가 등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었음에도 이를 강압적으로 진행한다"며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직접 돌아다닌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4대강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 그는 "4대강 현장은 그야말로 끔찍했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넓은 공간이 모래로 뒤덮여 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수없이 많은 생물이 죽어가고 있구나'란 생각이 절로 탄성이 나온다"며 안타까워했다. 때문에 그를 비롯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0여명은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직접 거리에 나와 단식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나라에서 시민들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다 보니, 시민들의 자신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일반 시민보다 제약을 덜 받는 우리가 직접 나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단식기도의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부터 단식기도를 펼치며 명당 성당 앞에서 침낭을 펴고 잠을 자고 있다. 그 외에는 미사와 기도를 하며 오후에 있을 쫓날 기도 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물로 배를 채워 배고픔을 참아내며 11일째 이 일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더 힘들게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다. 바로 몇몇 보수집단이다. 그는 "지난주 수요일에 아버지 연합이라는 집단에서 찾아와 기도를 멈추라며 욕하고 우리를 빨갱이로 몰아갔다"며 어려움을 밝혔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해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우리사회가 돈, 경제 성장이란 요소들보다 생명, 정의 등의 가치가 더 우선되는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 거리에 나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현장, 남한강을 가다

자연이 거대한 시멘트 대지로 바뀌는 참혹한 현장 “자연의 훼손을 누가 허락했는가”

들어보았니, 너는 그 땅들에게 그 땅의 흙눈들에게 물어보았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지렁이 한 마리 어린 풀포기 하나, 갑자 한 톨, 벼 한 포기에게 당신들의 가슴을 찢고 가르고 짓밟고 강제로 묻고묻까지 시켜도 좋겠냐고 물어보았니

- '너는 누구에게 물어보았니' 중, 송경동

홍수를 막고 물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과 주변 강들의 하천정비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이 대대적인 공사는 '물 부족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하천을 건강한 문화생태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그런 긍정적인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5월 29일, 신문사 기자 일행은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 현장인 남한강 정비 공사현장과 여강길을 탐방하기 위해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남한강을 찾았다.

우리는 순례길을 함께 할 일행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여주에 위

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에서는 골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곳의 흙을 골재로 만들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쌓인 모래들을 골재로 사용하려면 모래를 정교하게 분리하는 작업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비용은 수백억이며 이 때 나오는 오물과 폐수는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일행은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의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미 공사가 끝나 강이 흐르고 있는 곳과 굴삭기가 한참 강바닥을 파내고 있는 곳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에는 자리잡은 보수작업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 구조부재와 함께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쉽게 움직이며 기계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공사현장 너머로는 모내기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은 땅과 강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버스가 공사현장에 가까워질수록 '생명이 깨어나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한강-한강살리기사업 6공구'라는 이름을 내걸고 한강고수부지처럼 만들기 위해 땅을 다지고 있는 굴삭기의 끊임없는 굉음이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아름다웠던 강이 기계에 의해 시멘트로 매워지고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현장의 참담함에 놀라는 사람들의 현에서 "저기

막고 강을 만들기 위해 밤낮 구분 없이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탓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흙탕 너머로 보이는 산과 흐르는 강 사이는 원래 수달과 야생동물의 통로였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차단되어 이들의 서식지는 위협받고 있다. 이산화씨는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여주는 원래 홍수가 잘 나지 않는 지역이다. 작년엔 50년 만에 홍수가 낮지만 인명 피해는 단 한명도 없었다"며 "보가 세워지는 지역과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천보 현장의 한 쪽에서는 물길을 따라 왼쪽으로 흐르던 물길을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자연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답답할 뿐이었다.

순례의 오후 일정은 해물어산길을 걷는 것이었다. 이곳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서 나오는 강과 물이 합쳐져, 삼합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그 안의 도리섬은 천연기념물 단양속부쟁이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생육지가 파괴됨에 따라 멸종위기 2급 식물인 속부쟁이를 대체이식지로 옮겨 심었지만 무럭무럭 싹이 나기 전에 반은 죽고 나머지도 반도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이다. 이들이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은 탓이다. 해물



▲ 흐르던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이다.



▲ 강물을 파내고 인공 공사가 진행중이다.

지한 신록사 안의 강변유원지로 이동했다. 서울보다 맑은 공기를 뽐내고 있는 신록사였지만 한 쪽에서는 끊이지 않는 공사소음으로 인해 사람의 고요함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었다. 다른 한 쪽에는 삼각산 화계사정원회에서 내건 '어찌 이곳을 흠트려라 하신나까' 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음을 보고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했다. 일행과 만나기로 한 강변유원지에서는 임시 가물막을 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서 기자는 녹색연합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의 주최로 '생명의 강을 모시다, 강은 흘러야한다'는 구호가 써여 있는 조끼를 입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강바닥을 파낸 흙이 강 주변에 산처럼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을 아적장이라고 부르는데 주위의 산과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였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주황색인전모를 쓴 사람의 머리에 '신규채용자'라고 쓰여있어, 일자리를 창출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이지"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처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언급하는 일자리창출의 허상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강변에 들어서자마자 일행과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한 주민의 반발이었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단체들의 방문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탓에 그는 "몇 달째 잠도 못자고 있다. 폭탄맞은 것 같은 심경이다"며 4대강 공사로 겪는 불편을 토로했다. 우리는 그의 일그러지는 얼굴과 진흙탕 운동장으로 변해버린 참사의 현장을 보면서 공사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했다. 강천보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5개의 보가 위치하고 있었다. 4대강 현장활동가 이산화씨는 "현재 5개의 보 위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한다"며 "가름막이를 쳐서 물을

어산길은 예전에는 수리부엉이, 등롱의 흔적이 가득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시골의 한적함 속에도 저 멀리서 굴삭기 소리가 들려온다. 이 순례길에 참가한 김동현(화사원씨)은 "사람들의 자연훼손이 이대로 계속 진행되어도 괜찮을지 의문이 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있다. 강물과 땅을 단절시킨 콘크리트들로 강물 옆에 풀 한 포기조차 살지 못한다. 지금 이 공사를 막지 못한다면 어릴 적 휘날던 아름다운 강물은 오래된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강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다면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개발중독증에 걸린 몇몇 인간의 과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재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2010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사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금번 설명회는 유엔기구들의 주요 업무내용과 인사·채용·Internship 제도를 설명하는 전체 세션과 영문이력서작성, 면접 준비 등에 관한 소그룹 워크샵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구	인사책임자	직 위
유엔사무국	Mr. John Ericson	인사과장
유엔아동기금(UNICEF)	Ms. Michiru Tamanai	인사과장
유엔개발계획(UNDP)	Mr. Michael Emery	채용과장
	Ms. Lykke Andersen	인사담당관
유엔통사단(UNV)	Mr. Christoph Beck	채용과장

시간	진행 계획
09:00-09:45	접수확인 및 설명회 절차 배포
09:45-10:00	일정
10:00-10:30	개회 및 유엔기구 소개
10:30-11:30	유엔기구 채용정책 설명
11:30-13:30	점심시간
13:30-14:30	워크샵 (3개 동시진행) 국제기구 진출 전반에 대한 Q&A(Managing your career holistically) 이력서 작성법(How to write your application) 면접 준비 방법(Competency-based Interviews)
14:45-15:45	워크샵 (3개 동시진행) 국제기구 진출 전반에 대한 Q&A(Managing your career holistically) 이력서 작성법(How to write your application) 면접 준비 방법(Competency-based Interviews)
16:00-17:00	워크샵 (3개 동시진행) 국제기구 진출 전반에 대한 Q&A(Managing your career holistically) 이력서 작성법(How to write your application) 면접 준비 방법(Competency-based Interviews)

- 참석접수
-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를 통해 선착순 접수 예정
- 문의처
- 외교통상부 유엔과
tel. 02)2100-7278 / email : unrecruit@mofat.go.kr



한성커플최강전 무대에서 커플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20일 타이거 JK의 무대에 학생들이 환호하고 있다



미래관 앞에 설치된 손바닥보화

2010 한성대학교 대동제 re:Design Festival



19일 학생들을 열광하게 한 애프터스쿨의 무대



가면을 쓰고 등장한 김강산 학생



Free Hug 행사하는 회화과



18일은 아리한 페스티벌에서 타카코에 열렸다



학생들이 대동제 무대행사를 즐겁게 구경하고 있다



낙산극회에서 스타 춤마임을 선보였다



슈퍼스타 H에서 세 남학생이 공연을 하고 있다



회화과의 수제다이어리 점



풍선 맞추기 보드를 들고 나온 지식정보학부